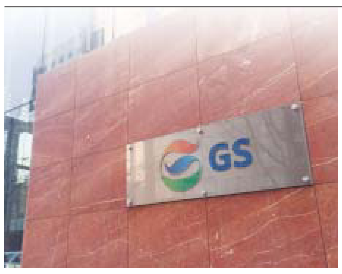



GS 1분기 내부거래 더 늘어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26일 화요일 제3222호 ww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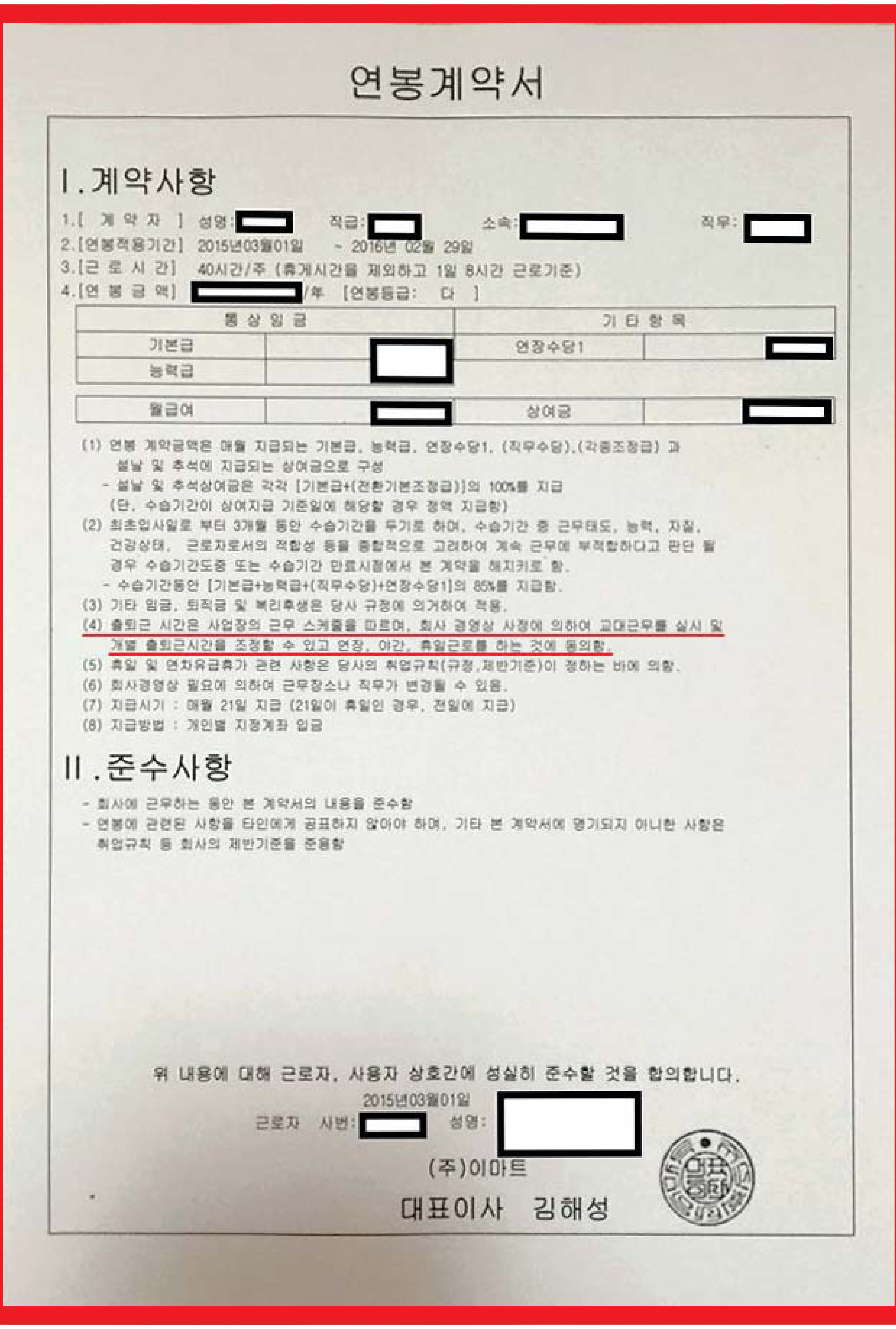




'착않여'서 열연한 채시라

# 노예계약?

"출퇴근시간 회사가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



## 연봉계약서

### I.계약사항

1.[ 계 약 자 ] 성명:[redacted] 직급:[redacted] 소속:[redacted] 직무:[redacted]
2.[연봉적용기간] 2015년03월01일 ~ 2016년 02월 29일
3.[근 로 시 간] 40시간/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기준)
4.[연 봉 금 액] [redacted]/年 [연봉등급: 다 ]

| 통 상 임 금 | | 기 타 항 목 | |
|---|---|---|---|
| 기본금 | [redacted] | 연장수당1 | [redacted] |
| 능력급 | | | |
| 월급여 | [redacted] | 상여금 | [redacted] |

(1) 연봉 계약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능력급, 연장수당1, (직무수당),(각종조정급) 과 설날 및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구성
- 설날 및 추석상여금은 각각 [기본급+(전환기본조정급)]의 100%를 지급
(단, 수습기간이 상여지급 기준일에 해당할 경우 정액 지급함)
(2) 최초입사일로 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를 두기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건강상태, 근로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수습기간도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점에서 본 계약을 해지키로 함.
- 수습기간동안 [기본급+능력급+(직무수당)+연장수당1]의 85%를 지급함.
(3) 기타 임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은 당사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
(4)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
(5)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은 당사의 취업규칙(규정,제반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장소나 직무가 변경될 수 있음.
(7) 지급시기 : 매월 21일 지급 (21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8) 지급방법 : 개인별 지정계좌 입금

### II.준수사항

-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의 제반기준을 준용함

위 내용에 대해 근로자, 사용자 상호간에 성실히 준수할 것을 합의합니다.

2015년03월01일

근로자 사번:[redacted] 성명:[redacted]

(주)이마트

대표이사 김해성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불법 직원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가 이번엔 '강제근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내밀었다. 해당 연봉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항이 포함됐다.

매년 3월 1일 이마트 근로자들은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한다. 직급과 직책변동,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인데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올해 연봉계약서에 지난해에 없었던 새로운 조항이 생겼다는 점이다.

2014년 연봉계약서 제4항에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5일 메트로신문이 확인한 2015년 이마트 연봉계약서에는 제4항이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으로 변경됐다. 연봉과는 관계없는 추가 근무에 대한 일괄 동의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이마트 근로자들은 추가근무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상승된 연봉의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한 이마트 직원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연봉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있냐"며 "우리 같은 약자는 그저 서명하라면 하고 추가 근무 하라면 할 뿐"이라고 한숨을 토했다.

이같은 연봉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한다. 해우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결과 이마트의 연봉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 결정 노사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따라 무효다.

또 이후 이마트가 연봉계약서를 들어 추가근무를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으로 책임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이는 법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의 거부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조항이다"며 "사측에 해당 조항이 잘못됐음을 알렸지만 사측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우법률사무소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추가 근무에 대한 일괄 동의조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해 당연 무효며 추후 추가 근무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지난 18일 취임식에서 재선에 성공한 람 이매뉴엘(왼쪽) 시카고 시장이 쿡 카운티의 팀 에반스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매뉴엘 시장은 재선을 앞두고 지난 해 시의 재정 위기를 부른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시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실패했다. /뉴시스

#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 美 시카고도 위기

## 일부 신용평가는 '정크시티' 수준 강등… 위기 못 넘기면 현실화 될 수도

한국처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곳이 미국에도 있다.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다. 시카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당장 지방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을 낮추려는 시도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지만 신용평가기관이 시카고의 신용등급을 '정크시티'(쓰레기도시) 수준으로 강등했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부의 평가가 아닌 실제 '정크시티'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2013년 7월 자동차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전례가 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의 자구책 노력은 이번 주 한 차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보류했던 지방채 발행을 이번 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무디스는 시카고의 신용등급을 투기수준인 Ba1으로 강등했다. 시의 재정 적자 해소대책이 신통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Ba1는 투자부적격 등급이다. 이 등급의 채권은 흔히 '정크본드'(쓰레기채권)로 불린다.

시는 당초 시청이 빌린 9억 달러의 채권을 변동 이자율에서 고정 이자율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자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2억 달러를 추가로 빌릴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 대법원의 판결로 좌절되면서 적자를 메꿀 돈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시가 발표한 채권문서에 따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시의 연금적자는 각각 5억 달러씩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 취임한 람 이매뉴엘 시장은 재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뒤늦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주 대법원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시 공무원들은 "주 헌법상 공무원 복지 혜택이나 임금이 축소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재선에 간신히 성공한 이매뉴엘 시장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치적 성공 가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권 초기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공화당이 장악한 일리노이 주정부가 시카고 구하기에 적극적이란 점이다. 3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을 제안할 정도다. 지역 내 최대 도시의 재정 위기가 주 전체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 동성애자 출신 보건장관 "시민혁명 같다" 환영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아일랜드 안팎에서는 시민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찬성 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 투표 비율을 웃돌았다. 국민투표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헌법을 고칠 지를 물었다.

수도 더블린에 있는 성에서는 2000여 명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해진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했다. 레오 바라드카르 보건장관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투표라기보다는 시민혁명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올해 초 방송에서 "나는 게이"라고 커밍아웃한 인물이다. 하지만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다.

아일랜드는 가톨릭국가지만 90년대 이후 끊이지 않는 교단의 성추문으로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태다. 이번 국민투표에 앞서 가톨릭교회가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을 벌였지만 아일랜드 국민은 무관심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 그렉시트·브렉시트 이어 포렉시트까지

## 유럽, 재정악화로 해체 위기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 대표(왼쪽)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연합뉴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포렉시트(포르투갈의 유로존 탈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통 원인은 재정 악화다. 유럽이 재정 문제로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니코스 부트시스 그리스 내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현지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월 중에만 국제통화기금에 갚아야 하는 채무는 총 4차례에 걸쳐 16억 유로에 이른다"며 "우리는 이를 갚을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채무 상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 지원을 위한 개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채권단에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므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게 된다. 그리스는 협상이 뜻대로 안될 경우 유로존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최근 보수당의 총선 압승으로 가시권에 들어섰다. 영국 내에서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이민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늘어난 복지부담 등이 재정악화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변국에서는 캐머런 총리의 공약이 브렉시트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평가가 있어 왔다. 하지만 지난 23일(현지시각)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은 실제 브렉시트의 충격을 비밀리에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투갈은 오는 9~10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사회당은 그리스의 집권세력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세금감면과 임금인상을 주장한다. 포르투갈은 2011년 재정위기 때 구제금융 조건으로 긴축재정을 채권단에 약속한 바 있다. 사회당이 총선에 승리할 경우 포르투갈과 채권단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권단이 구제금융을 중단할 경우 포르투갈도 포렉시트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그리스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송병형기자




지난 달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영 나온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순방 직전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부했다. 5일 뒤 여야는 5·2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박 대통령의 반응은 차가웠다. 당청 간 소통을 맡은 조 수석은 합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8일 사퇴했다. /연합뉴스

# 공무원연금개혁 5·2 합의안 봉합 수순

## 5월국회 본회의서 우선처리… 미봉책 비판 여전

공무원연금개혁이 5·2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5월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분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5·2합의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노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막판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은 새 개혁안이 깨질 것을 우려해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처럼 협상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협상라인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알려진 상태다. '50%' 수치를 못박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두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확충 논의'로 의견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분위기는 여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5·2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과 유리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적당히 조절했기 때문에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는 지적과 함께 "실패한 개혁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또 다시 탈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대선주자 지지도 '상종가' 김무성**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25일 5월 셋째 주 정기여론조사 결과,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3주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임명동의안 오늘 제출… 청문회 정국 개막

### 병역·전관예우 논란 예상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개막이다.

하루 앞서 여야는 청문회 정국 격돌을 예고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정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013년 황 총리 내정자는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황 내정자는 기부 약속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 불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미 황 내정자를 '공안 총리'로 낙인찍은 상태다. 현재 청문회 태스크포스(TF)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황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에 따른 병역면제 적절성, 로펌 재직시 받은 거액 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역사관·종교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서이기자

# 연정 1년 남경필 '정치쇼'였나



남경필(사진) 경기지사가 국내 최초로 여야 간 연정을 추진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도의회는 정작 '남 지사식 연정'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지사의 시도가 차차기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25일 도의회 혁신·지방분권특위가 공동도시연구소에 의뢰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약 23일간 경기연정에 대해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연정의 당사자인 도의회가 내부적으로는 남 지사표 경기 연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정이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다'는 물음에 응답한 67명(전체 52.7%) 의원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답이 52명(77%)이었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15명(22%)에 불과했다.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정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의원이 21명(31%), '그렇지 않다'가 20명(30%), '전혀 그렇지 않다'는 8명(12%)으로 응답자의 73%인 49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그런 편임'이 15명(22%), '정말 그렇다' 3명(4%) 등 긍정적 답은 18명(27%)에 그쳤다. '연정을 추진하는 실행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나'라는 물음에는 전체의 80% 수준인 54명이 부정적이었고, 13명(19%)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기연정'은 지난해 6월 남 지사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 단체장과 여소야대 경기도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다. 행정분야의 일부를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서이기자

# '성완종' 서산장학재단 돈세탁 정황 포착

### 檢, 자금흐름 추적… 로비 연관성 수사 총력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 전회장의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뭉칫돈이 세탁 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15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학금 지급 내역,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으로 돈이 흘러나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중 2011~2014년 재단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최소 수억원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원래 사용하지 않던 계좌로 들어가고, 또 다른 일부는 현금화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단은 대아레저산업을 비롯한 경남기업 계열사 등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돈의 일부가 불투명하게 처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장학재단을 경유한 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 결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은 2011년 18억3343만원으로 지출됐지만 2012년에는 266만원으로 급감하는 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단은 2013년 세무당국에 20억원을 기부 받아 대부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손익계산서에는 사업비를 2억3000만원 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의 금품




거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 속 남은 정치인 6명의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성 전 회장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 증거를 최대한 끌어 모으고 정확한 관련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의혹 규명의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금품거래 관련 중요 시점으로 보는 것은 연말 대선이 있던 2012년과 6월 지방선거를 치른 2014년이다.

당시 성 전 회장과 불법 대선자금 거래 의혹이 제기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홍 의원은 당 사무총장으로, 유·서 시장은 직접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향후 3~4일간이 남은 리스트 6인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을 경유한 뭉칫돈 용처를 추적해 자금 의혹 관련 흐름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도 이 같은 '총력 수사기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반면 의미 있는 돈의 흐름이 발견되더라도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있다면 이미 드러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핵심 진술 인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돈을 발견하고도 이를 리스트 속 인물들과 결부할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더 진행되지 못한다는 전망이다.

검찰이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 이용기씨를 비롯해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을 계속 조사하며 추가 단서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서산장학재단 핵심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재단 밖으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기로 하는 등 비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당분간 주력할 방침이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 法, 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집유 2년'

### 개인 빚 청산·기념화폐 구매… 배임·횡령 기소

나랏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 전 한은 직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 A씨는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은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은은 A씨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이달 면직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홍원기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 논란

### 내달 안에 결론 나올 듯

출범 준비부터 논란을 겪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식 활동 개시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에 내년 특조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정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에 보장된 세월호 참사 조사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결론 지어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별법 시행일에 관해 올해 1월 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다.

특조위 활동이 1월 1일 시작됐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은 최대 6개월치만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개시 시점을 3월 초로 잡는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은 최대 9개월치 이내 편성해야 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특별법 시행일




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조위는 위원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또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민간 조사위원들이 충원돼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열어야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7월설'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은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와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인양 완료 시기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다.

특조위 활동이 1월 또는 3월에 시작한 것으로 결론나면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활동 개시일을 5월 11일로 잡는다고 해도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특조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활동을 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활동기간 때문에 선체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원기자

# 제일모직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 형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극형



2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가 불에 타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25일 새벽 2시22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큰 불이 발생, 건물과 의류 등이 불에 타고 경비원 1명이 숨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제일모직 물류창고 폐쇄회로(CCTV)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또 이날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CCTV 화면에는 이 수상한 남성이 부탄가스를 들고 6~7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확보한 나머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고 범인이 검거되면 그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형법은 내란, 외환, 살인 등 15여 개 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극형인 사형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의범이다. 형법이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유일한 범죄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다.

형법 제 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이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경우 설사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극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다.

이는 일제시대 형법에서 부터 규정돼 있던 것인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과 우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법은 △약취 유인 치사 △강간 치사 △인질 치사 △강도치사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 포스코 정동화 영장 기각… 檢 수사 제동

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포스코 '윗선'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꼽혀온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당분간 보완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에 집중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과 20일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을 나란히 소환조사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소명에 힘을 쏟으면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받은 전 회장으로선 검찰의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수 있는 수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라인은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의 연휴 동안 포스코 의혹과 관련해 실무 검사들에게 우선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 숨고르기를 끝낸 후 이번주 안에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실소유주였던 인물로 성진지오텍 매각 당시 고가에 회사를 팔고 양도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이중 일부를 포스코 윗선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있어 정 전 부회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포스코그룹 윗선과 연결시킬 '연결고리'로 꼽혀왔다.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의 이모(65) 대표와 함께 이란 현지법인에서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 공사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후 정 전 회장의 소환시기도 확정될 전망이다.

/유선준기자 rsunjun@

## 부천 세 자매 '생활고 비관' 자살

25일 오전 4시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한 아파트에서 자매 3명이 사망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경찰에서 "화단에서 '쿵'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30대 여성 두 명이 쓰러져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33·여)씨와 B(31·여)씨는 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C(29·여)씨는 이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는 게 힘들다.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과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 자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추락사로 추정되고, C씨의 정확한 사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 "고객·애국심 동시에" 은행권, 보훈 마케팅 활발

##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상품 선보여

은행권에 애국 바람이 불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나라사랑의 뜻을 되새기는 등 애국심과 고객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애국심 자극**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호국보훈과 관련한 예·적금 상품을 내놓는 한편 독립유공자 후원과 독도여행 이벤트까지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곳은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20일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영웅' 고객 초청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고객과 뮤지컬 '영웅'을 관람하며 나라사랑의 마음까지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3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공동 출시한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및 적금' 가입 고객 등 하나금융 고객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 은행이 계좌당 815원을 출연,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해외 독립유적지 보존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가입고객에게 중국내 대표적 항일 유적지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8150명에게는 태극기를 증정하는 등 대대적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 하얼빈 기차역 내 안중근 기념관에 옥외광고를 집행,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상품출시-금리우대-유공자후원-이벤트까지 전방위 지원**

독립유공자에게 금리우대를 해주거나 직접적인 후원을 하는 곳도 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를 방문했다.

권 행장은 이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내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의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또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를 다룬 영화 '연평해전'의 흥행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영화 연평해전 통장'도 판매한다.

500억원 한도로 나온 이 예금은 1년만기 예금 상품이며, '중소기업금융채권' 또는 '실세금리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현충일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호국보훈의 달, 연평 정기예금'을 내놨다.

이는 애국선열과 국군장병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1년제 정기예금으로 내달 9일까지 총 3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별도의 금리우대 조건은 없으며 연 1.8%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또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가입하면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해군 장병을 기리기 위해 상품 가입 고객 815명을 추첨, 내달 11일 개봉 예정인 영화 '연평해전' 관람권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키로 했다.

NH농협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스마트뱅킹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NH스마트뱅킹에 신규가입하거나 스마트·인터넷뱅킹을 통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은 8월 14일까지 행사에 응모하면 된다.

당첨고객에게는 광복 70주년의 의미에 걸맞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독도여행상품권(70명)과 농촌사랑상품권(815명) 등이 주어진다.

NH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편리하고 안전한 NH스마트뱅킹을 알림과 동시에 순수 민족자본 금융기관으로서 광복 70년을 맞아 고객들과 함께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정성껏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 인천 '퓨처시티' 조성, 물 건너가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월 초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4조원을 유치, 검단지역에 '퓨처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지역 1단계 사업부지 386만㎡에 글로벌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퓨처시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인천시는 앞서 3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정복 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칼리파 알 아부스 두바이투자청 부사장 겸 퓨처시티 CEO를 만나 인천 검단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LOI)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시는 "서명 과정만 남긴 MOU는 최종 투자합의에 따라 통상적인 포괄 업무협약 수준이 아닌, 사실상의 준계약서 형태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사업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MOU는 2주 후 두바이투자청 CEO가 인천을 답방해 체결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3월 중순쯤으로 예정됐던 MOU 체결은 두 달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지역개발유치팀 관계자는 "언제 MOU를 체결할지 잡힌 게 없다"며 "아직 어떤 곳과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아주복지재단 '아주행복한공부방' 실시** 아주그룹의 비영리재단인 아주복지재단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 방배복지관에서 '아주 특별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이 물품 기부와 판매에 직접 나섰다. 기부 물품 접수를 시작한 지 약 10일 만에 2000여 점의 도서와 의류, 장난감 등이 모였다고 아주복지재단 측은 전했다. /아주복지재단 제공

기사제보=02)721-9861

광고문의=02)721-9842

**로또복권** 제651회

| 1등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숫자 |
|---|---|---|---|---|---|---|
| 11 | 12 | 16 | 26 | 29 | 44 | 18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원) |
|---|---|---|
| 1등 | 6개 숫자 일치 | 1,855,306,454 |
| 2등 |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 70,678,342 |
| 3등 | 5개 숫자 일치 | 1,468,968 |
| 4등 | 4개 숫자 일치 | 50,000 |
| 5등 | 3개 숫자 일치 | 5,000 |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 방방곡곡 찾아가는 금융 교육… '따뜻한 금융' 실천

신한은행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이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연간 5만여명의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 중이다. 매년 4~5월은 신한금융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으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사로서의 특성을 살려 금융 교육을 통한 사회 기여에 힘쓰고 있다.

광화문캠퍼스와 부산캠퍼스 등 2곳에는 청소년금융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내 은행권 최초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금융교육 전용 체험관을 만들어 체험식 교육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직원들의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진행되는 신한 어린이 금융 체험 교실을 마련했다. 240여 명의 직원 강사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융 강의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금융 체험 교육을 시행해 금융 사각지대로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는 강원도 소재 6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금융 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통해 금융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측은 강원지역 교육에 이어 충청, 전라, 경상지역 30개교 1000여명의 학생들을 차례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육 - 우리 학교에 신기한 은행이 왔어요'. 참가 학생들과 직원들이 신한은행 이동점포인 뱅버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소재 30여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구촌 곳곳으로 사회공헌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문화예술 분야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세계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
글로벌 Top5 기업으로서
15년간 17배의 성장을 이루며
세계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KT&G
대한민국에서 쌓아온 비전과 열정으로
글로벌 No.1 기업을 향한
KT&G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 50여 개국 수출 · 글로벌 Top5 기업
상상경영
KT&G는 끊임없는 '상호협력과 상생추구'로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상상에 답하다
KT&G

# 제이콘텐트리, 영화산업 지도 바꾸나

### 메가박스 지분 인수 주가 반등… 신고가 경신 시장 독과점 지적은 부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최근 제이콘텐트리의 메가박스 인수 소식에 제이콘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콘텐트리가 메가박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앞으로의 영화산업 판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업계에선 제이콘텐트리의 미디어·영화업계 참여를 환영하며 목표주가를 올려 잡고 있다. 다만 메가박스가 시장점유율에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밀리는데다 멀티플렉스들의 시장 독과점이 도마에 오르는 상황에서 메가박스가 뒷심을 발휘할지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이콘텐트리는 앞서 지난 21일 메가박스의 2대주주인 한국멀티플렉스투자주식회사(KMIC)의 맥쿼리와 연기금 보유 지분 전체(95.8%)를 152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제이콘텐트리가 보유하게 된 메가박스 지분은 약 97.9%로 인수자금은 108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콘텐트리가 메가박스 인수 계획을 밝힌 다음날인 22일 이 회사 주가는 전날대비 3.47%(145원) 오른 43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458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 들어 줄곧 주당 3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해 온 것에 비춰보면 두드러지는 반등세다.

국내 영화산업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CGV(48.9%), 롯데시네마(29.5%), 메가박스(17.8%) 순이다. 영화계에선 이미 국내 시장을 포화상태로 보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관관비 증가에 따른 이익률 하락도 걱정이다. 더불어 이들 3대 대형극장의 시장 잠식이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영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화사 봄, 명필름 등 19개 제작사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 멀티플렉스의 시장 독과점 행태, 수평 담합 등은 한국 영화계에 뿌리 깊은 문제로 심각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메가박스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제이콘텐트리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박스는 직영점수를 올해 최소 26개에서 최대 29개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박스오피스 시장이 저성장 구간에 들어섰지만 메가박스는 배급사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진출까지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목표주가는 기존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제시했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인수 후 전체 기업가치는 6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지배주주순이익은 2배 가까이 증가하지만 유증과 차입으로 EPS(주당순이익) 상승효과는 10% 내외"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그러면서 "향후 해외진출 및 국내 직영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기존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CGV의 직영점은 지난 2010년 58개에서 올해 5월 82개로, 롯데시네마의 직영점은 69개에서 87개로 증가했으나 메가박스 직영점은 24개에서 25개로 1개 증가에 그쳤다"며 "메가박스 경영권이 제이콘텐트리와 KMIC로 나뉘어 운영돼오며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결과여서 앞으로는 고마진의 영화산업의 호황을 제대로 누릴 것"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려 잡았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 쌍방울, 제2 도약 '청사진'

### 中서 유통채널 다각화 국내, 시니어 시장 공략

'쌍방울'이 국내 내의 매출 회복과 아동복을 통한 중국 진출의 본격화로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와 국내 유통망 확충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쌍방울은 지난 2013~2014년 내수시장 침체와 거래처 중단, 주력 해외지역인 중동에서의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은 중국 법인의 흑자 전환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오프라인 유통망도 지난해 320개에서 올해 330개로 외형성장이 예상된다. 주가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999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지난달부터 급등해 장중 2000원(4월23일)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정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쌍방울은 '트라이' 외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다른 브랜드를 강화할 전망"이라며 "특히 시장규모가 가장 큰 란제리와 고부가가치 제품인 시니어 속옷에 집중해 국내 매출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쌍방울의 패밀리숍 형태인 오렌지숍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수가 확대되고, '샤빌'과 '올쏘' 등 란제리와 노인 전용 브랜드 강화를 통해 올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긍정적이다.

이정기 연구원은 "쌍방울은 지난 2월 런칭한 중국 아동복 브랜드 '리틀탈리'를 비롯해 전 품목의 백화점 진출을 위해 중국 대진그룹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및 홈쇼핑으로의 유통 채널 다각화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지난 18일 중국 대진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대진그룹은 현재 백화점 8개점과 호텔 7곳, 부동산 및 의류 브랜드사업과 무역, 귀금속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형 민영기업 그룹이다. 지난해 약 6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영역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쌍방울은 '트라이' 내의를 비롯해 친환경 오가닉 소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영유아내의 '크리켓'과 여성란제리 '샤빌' 등 전 품목을 판매하게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 유동성 장세 지속… 박스권내 소폭 반등

**| 주간 증시전망 |**

### 코스피, 완만한 상승세 제약·IT부품 업종 관심




지난 22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122.81) 대비 23.29포인트(1.10%) 오른 2146.10에 마감됐다. 이날 코스닥은 전날보다 2.1포인트(0.29%) 내린 713.54에,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내린 1090.1원에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이번주(26~29일) 코스피는 미국 경기와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기대감의 긍정적인 조합에 힘입어 2120~2180포인트 안에서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인상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로존의 유동성 장세가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국내 장세에 호조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주 초반 2100선에서 상승 출발해 22일 종가기준 2140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채권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번주에는 ▲미국 1분기 GDP 수정치 발표(29일) ▲월드 IT쇼(27일)·SS코리아(27일)·구글 I/O(28일) 등 핀테크 관련 이슈 등 이벤트가 준비돼있다.

우선 앞서 발표된 미국 1분기 GDP는 0.2% 성장했으나 수정치는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미국 2분기 GDP 예상치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Fed와 ECB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글로벌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재차 개선되며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돼 코스피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연구원은 이어 "업종별로는 차별화 장세 속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의료기기, 제약, IT부품, 화장품, 증권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동아에스티, 오스템임플란트, 원익IPS, 솔브레인, 아모레G, 키움증권 등을 개별 관심 종목으로 추천했다.

아울러 이번주 월드 IT쇼에서는 사물인터넷·드론·스마트카드 등 제품이 선보인다. 이어 SS코리아에서는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구글 I/O에서는 안드로이드 6.0 M과 구글 쇼핑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난 18일 비대면 결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다음달 중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핀테크 관련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CB의 유동성 장세 유지 기조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다. 지난달 ECB의 국채매입 금액은 470억 유로로 당초 계획했던 600억 유로에 못 미쳤다. 다만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산매입 금액을 늘릴 계획이어서 유동성 모멘텀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ECB가 추가 국채매입을 언급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였다"며 "이는 오는 7~8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를 고려해 5~6월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만약 매입 대상 채권이 줄어들 경우 예치금리를 더 낮춰 매입 대상 채권 자산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김보배기자

# 거꾸로 가는 GS, 내부거래 되레 늘어

## (주)GS,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전기比 3배 증가

GS그룹의 지주사인 (주)GS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내부거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늘었다.

여기에는 GS글로벌과 지에스엔텍이 자리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GS 연결회사와 관계기업의 특수관계자 주요거래 매출은 428억원으로 전 분기(124억원)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공동기업 거래 매출까지 합하면 774억원으로 전 분기(682억원) 대비 13.48% 증가했다.

이 같은 원인은 지에스엔텍의 최대주주인 GS글로벌에 있다.

대부분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줄어든 반면, 이 기간 지에스엔텍의 내부거래 매출은 38억원에서 352억원으로 9배 넘게 불어났다.

그런데 지에스엔텍의 1분기 내부거래 매출은 GS글로벌 29억원, GS칼텍스 9억원 등 38억원 수준이다.

GS를 통한 내부거래 내역은 없다.

반면 지에스엔텍의 지분 44.11%를 보유한 GS글로벌은 1분기 지에스엔텍을 통해 352억원의 매출 수익을 냈다.

전 분기 38억원에서 826.31% 급증한 규모다.

GS글로벌의 최대주주는 지분 54.58%를 보유한 GS다.

특수관계인으로는 정택근 현 GS 대표이사 사장이 보통주식 1만주를 보유해 지분 0.04%를 쥐고 있다.

GS글로벌은 올해 3월말 대표이사 자리에 당시 정 사장에서 이완경 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정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해 4분기에서 올 1분기로 오는 동안 GS글로벌의 지에스엔텍 내부거래 매출이 9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이에 대해 GS그룹 관계자는 "수직 계열화 과정에서 직계 회사와 방계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까지는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주요사업 특성에 따라 내부거래가 불가피할 수 있고, 그룹사 전반적으로 내부거래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23일 부산시와 공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부산시민공원과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르노삼성 제공

# 스파이더맨 손잡고 교통안전 배워요

### 르노삼성車-부산시 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맞손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시민공원과 인근 교차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르노삼성차는 부산시와 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송'에 맞춰 교통안전 퍼포먼스와 수신호 댄스 플래시몹을 펼치며 어린이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르노삼성차가 지난 1월 부산시와 협약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모한 부산시민들이 지은 가사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다.

황은영 르노삼성차 홍보본부장은 "부산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즐겁고 친숙하게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린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차와 부산시는 이번 교통안전 율동과 캠페인송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관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정필기자

# 매출 급증에도 기부금 쥐꼬리

### GS그룹 '센트럴모터스' 작년 영업익 9억3647만원 기부금 고작 100만원 그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주주로 있는 '센트럴모터스'가 영업이익의 급증에도 기부금에 쓰는 돈은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트럴모터스는 일본차 렉서스의 딜러 브랜드다. 2005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GS계열로 편입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센트럴모터스의 영업이익은 지난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5억196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3년 2억8587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2014년에는 9억3647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매출액도 늘었다. 작년 센트럴모터스의 매출액은 599억2577만원으로 전년대비(534억8403만원) 약 60억원이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6억8238만원에 달했다. 전년도에 기록한 당기순손실 5억7014만원에서 흑자 전환한 수치다.

그러나 센트럴모터스의 기부금은 100만원. 이마저도 전년도 기부금액 10만원에 비하면 늘었다.

KCC그룹이 운영하는 수입차 딜러사 KCC오토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4억원, 기부금은 4290만원이다. 물론 영업이익이 센트럴모터스보다 많았으나 비율상으로 따져도 센트럴모터스에 비해 기부금 할당액이 높다. 2013년 KCC오토그룹의 영업이익은 1976만원으로 센트럴모터스 영업이익의 20분의 1 수준이었으나 기부금액은 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센트럴모터스 기부금의 20배에 달한다.

센트럴모터스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친인척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허 회장의 작은아버지 허완구 승산그룹의 장녀 허인영 승산 대표가 18.67%, 허 회장이 11.92% 지분을 갖고 있다. 허 회장의 사촌형인 허남각 삼양통상 대표의 장남인 허준홍 GS칼텍스 상무는 10.11%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센트럴모터스의 오흥훈 대표이사 역시 GS칼텍스 임원 출신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

# 현대重, 세계 최초 선박 2000척 인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선박 2000척을 인도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드릴십 '오션 블랙라이언'호(사진)를 미국 다이아몬드 오프쇼어사에 인도해 2000번째 선박 인도라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선박 2000척 인도는 100여년의 조선 역사를 지닌 유럽과 일본의 조선업체들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선박 2000척을 톤수로 환산하면 1억2600만GT(선박 총 톤수) 규모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건조한 선박 총 톤수(6380만GT)의 약 2배다.

현대중공업은 창립 10여년 만인 1983년 선박 수주와 건조량 부문에서 당시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하던 일본 조선소들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업체로 부상했다.

이후 2002년 3월 세계 최초로 선박 인도 1000척의 기록을 세웠고, 2012년 3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박 인도 1억톤을 달성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51개국 308개 선주사에 2000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국적별로는 그리스 254척, 독일 238척, 일본 120척, 덴마크 101척 순이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컨테이너선이 583척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탱커 23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147척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정필기자 roman@

# SK 윤활유 '지크' 국내 브랜드 수출길 열어

### 사우디 업체와 6년간 계약

SK루브리컨츠(대표 이기화)가 자사의 윤활유 브랜드 '지크(ZIC)'(사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

그동안 국내 윤활유 업체가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 사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자사 브랜드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루브리컨츠는 사우디 글로브테크의 윤활유사업 자회사 라빅퍼스트루브리컨츠와 지크 브랜드 사용허가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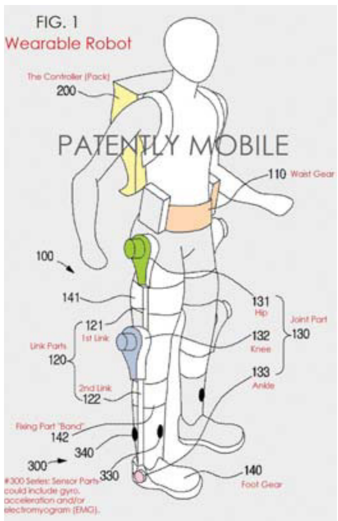
라빅퍼스트루브리컨츠는 2020년까지 6년간 지크 브랜드 윤활유 매출액에 연계해 매년 SK루브리컨츠에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SK루브리컨츠에 따르면 글로브테크는 사우디 내 석유유통 사업망을 갖추고 있는 코나이니 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파이프코팅 전문기업이다.

자회사인 라빅퍼스트루브리컨츠는 이번 라이센스 계약을 바탕으로, 자국을 포함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윤활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 삼성, 웨어러블 로봇 특허… 아이언맨 꿈꾼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구조도.
/패튼틀리 모바일 캡쳐

**사람 근력 향상에 초점**
**헬스케어와 시너지 기대**
**군사분야 신규시장 창출도**

'SAMSUNG(삼성)' 로고가 새겨진 아이언맨이 탄생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업과 군사 분야의 신규 시장 창출은 물론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헬스케어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패튼틀리 모바일(Patently Mobile)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미국특허청 문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됐다. 이 특허는 지난해 3분기에 출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이번 특허는 보행보조 장치로 사람의 근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몸에 착용하는 외골격 로봇은 사람의 힘과 일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치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토니 스타크가 입는 '아이언맨 슈트'와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톰 크루즈가 전장에서 착용하는 '엑소슈트'를 생각하면 된다.

최근 웨어러블 로봇은 산업과 군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작업 효율과 군인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실제 전장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윈터그린 리서치는 지난해 1650만 달러(약 180억원)인 외골격 로봇 시장이 2021년에는 21억 달러(229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업체는 외골격 로봇이 의료 재활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을 보조할 수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로봇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산업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 분야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웨어러블 로봇도 삼성전자 헬스케어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융복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보아오포럼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은 IT와 의학·바이오의 융합을 통한 혁신에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스마트케어와 스마트홈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전략 모바일 제품에 헬스케어 기능을 넣는 등 의료산업의 영역확대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며 "관련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 SKT, 라이프웨어 브랜드 'UO' 론칭

**초소형 프로젝터 '스마트빔 레이저'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은 26일 라이프웨어 신규 브랜드 '유나이티드 오브젝트(UO)' 론칭과 함께 새 브랜드가 적용된 첫 제품인 'UO 스마트빔 레이저'를 출시했다.

이번 론칭을 통해 스마트빔, 스마트밴드, 에어큐브 등 라이프웨어의 다양한 제품을 'UO' 브랜드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라이프웨어 간 연결을 통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UO 스마트빔 레이저'는 안전 1등급 레이저 광원을 사용해 HD급 해상도를 구현한 초소형 피코 프로젝터로 지난 CES, MWC 등에서 사전 공개된 제품이다.

큐브형 디자인과 5.5cm의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 195g의 가벼운 무게에 60루멘의 밝기와 실제와 가까운 HD급 색 재현력을 구현해 아웃도어 캠핑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이나 업무용 빔 프로젝터로도 용이하다. 또한 자동으로 초점을 잡는 포커스 프리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기능들도 추가했다.



SK텔레콤의 모델들이 'UO 스마트빔 레이저'를 홍보하고 있다.

UO 스마트빔 레이저는 27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 아이티 쇼 2015'에서 체험할 수 있다. 블로거·일반 소비자 대상의 상품 시연회도 열 계획이다.

출시 기념 사전 예약 이벤트를 27일부터 2주간 진행해 선착순 1000명에게 스마트 스피커 등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판매 가격은 39만9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UO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www.u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

## 삼성SDI, 中 편광필름 시장 본격 공략

**2000억 투자 공장설립 MOU**
**초광폭 라인 8세대 패널 적용**

삼성SDI가 중국의 편광필름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삼성SDI는 25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풀만호텔에서 조남성 사장과 리샤오민 우시시 당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편광필름 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편광필름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양쪽에 부착돼 백라이트유닛(BLU)에서 나오는 빛을 통과시키거나 차단해 밝기를 조절하고, 색을 재현하는 기능을 한다. LCD TV를 비롯해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에 탑재되는 핵심소재다.

이번에 삼성SDI는 우시공업지구에 2000억원대를 투자, 연간 3000만~4000만㎡ 생산 규모의 편광필름 공장을 설립해 내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48인치 기준으로 연간 2000만~3000만대 분량의 LCD TV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으로 국제 규격 축구장 약 5000면을 덮을 수 있는 규모다.


삼성SDI 청주사업장 편광필름 생산라인. /삼성SDI 제공

현재 삼성SDI는 국내 청주사업장에서 편광필름 3개 생산라인을 100% 가동 중이다. 내년 중국 공장이 완공되면 고객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SDI가 편광필름 제2공장으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대형TV용 편광필름의 주력 시장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편광 필름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억1200만㎡에서 2020년에는 4억2500만㎡로 연간 6%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국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6%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삼성SDI는 40인치 이상 대형TV용 LCD 패널의 성장세에 따라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 최대 크기인 8세대에 적용되도록 초광폭 생산라인을 갖출 계획이다.

우시공장에서 양산될 편광 필름은 인근 쑤저우에 있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공급될 예정이다.

/조한진기자

## "홈보이로 EBS 공부하고 하버드 가자"

**LGU+ 성적 향상 이벤트**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홈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홈보이'와 함께하는 성적 향상 프로모션을 26일부터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22일까지 EBS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를 보고 20회의 모의고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중고등학생 1명에게 미국 하버드, 예일 등 아이비리그 주요 7개 대학 탐방·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2등에게는 LG전자 최신형 노트북인 그램을, 3등에게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제공한다. 일별 성적 우수자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이벤트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모바일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제공한다.

/정문경기자

## LG전자, G4에 '스마트게시판' 만든다

**뉴스·SNS 등 10개 앱 제휴**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4에 내장된 '스마트게시판 사용자경험(UX)'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지향하는 'LG UX 4.0(사용자를 이해하는 쉽고 똑똑한 UX)' 개발 전략의 일환이다.

'스마트게시판'은 기존 G3 탑재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카드형태(단순한 사각프레임)' UX에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스마트게시판'에 뉴스 앱을 연동하면 뉴스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큰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다.

LG전자는 뉴스, 커뮤니티(빙글)·교통정보(맵피)·맛집검색(다이닝코드) 등 국내 약 10개 앱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 G4 사용자가 스마트게시판 설정화면에 들어가서 맘에 드는 앱을 골라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스마트게시판'과 앱이 연동된다.


G4 스마트게시판. /LG전자 제공

앞서 LG전자는 20일에 LG 개발자사이트(http://developer.lge.com)에서 '스마트게시판' SDK(개발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공개했다.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LG 개발자 행사(Developer Event)'에서 SDK를 별도 소개할 예정이다.

/조한진기자








# 투싼·티볼리·트랙스… 소형 SUV 강자는

**현대 '올 뉴 투싼'**
**플루이딕 스컬프처 2.0 세련된 도심형 스타일**

**쌍용 '티볼리'**
**한 달만에 9500대 판매 7월 경 디젤 모델도 가세**

**한국GM '트랙스'**
**한국·미국·유럽 등서 '안전성 최고 등급' 평가**

소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티볼리가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 올 뉴 투싼이 가세하면서 쉐보레의 트랙스와 경쟁이 치열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뉴 투싼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올 뉴 투싼은 2009년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3세대 모델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적용해SUV만의 대담한 이미지를 구현하면서도 세련된 도심형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형 헥사고날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가 자연스레 연결돼 대담한 전면부 이미지를 구현했다. LED DRL(주간전조등)를 포함한 프론트 범퍼의 날개 형상으로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실내 디자인은 최상의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운전자에게 효율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편의를 선사한다. 신형 투싼엔 가솔린·디젤 2L 모델 외에 1.7L 디젤 엔진과 7단 듀얼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을 적용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출시한 쌍용차 SUV '티볼리'는 이날 현재 출시 한 달여 만에 누적 계약 대수 9500대가 넘었다. 올해 판매 목표치(3만8500대)의 4분의 1을 한 달 만에 채울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티볼리는 1.6L(리터) 가솔린엔진을 단 소형 SUV다. 티볼리는 디젤 모델도 오는 7월께 내놓을 계획이어서 비슷한 급인 투싼과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티볼리는 남다른 감각과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6컬러 클러스터(계기판)'를 적용했다.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미터 클러스터를 ▲레드 ▲블루 ▲스카이 블루 ▲옐로 ▲화이트 그리고 ▲블랙의 6가지 컬러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티볼리'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차체의 71.4%에 고장력 강판을 사용했으며 이 중 초고장력 강판 비율 역시 동급 최다인 40%에 이른다.

쌍용차 관계자는 "'티볼리'는 누적 계약 1만대를 바라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기존 SUV는 투박한 이미지 였다면 티볼리는 작지만 예쁜 디자인과 낮은 가격에 비해 뛰어난 활용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쉐보레의 소형 SUV 차량 트랙스가 '안전성 최고 등급'을 받아 관심을 모은다. 트랙스는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신차안전도 평가에서 대상 차종 11종 가운데 가장 높은 총점 93.5점을 획득하며 올해의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유럽에서 진행된 '유로NCAP'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GM이 개발과 생산을 주도한 쉐보레 트랙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안전도 평가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국내팬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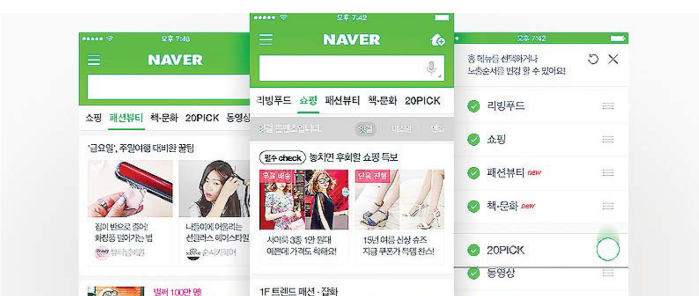
한국GM은 지난해 트랙스 가솔린 모델만 갖고 1만대 넘게 팔았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28.6%. 디젤 모델까지 가세할 경우 2만대 이상 판매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르노삼성차의 소형 SUV 'QM3' 도 지난해 1만8191대를 팔아 르노삼성의 실적을 견인했다. QM3를 등에 업고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30% 급성장 할 수 있었다. QM3는 7분만에 1000대 완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형SUV 시장의 열기를 달군 원조 SUV이다.

QM3 1.5dCi 엔진은 르노는 물론,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에 두루 공급되는 엔진으로 작고 가벼우면서 최대 토크는 22.4kg.m으로 가솔린 준중형차와 맞먹는다. 강력한 토크로 작은 차체를 여유롭게 밀어 부친다. 1.5 dCi와 맞물린 독일제 게트락 DCT도 높은 토크를 붙잡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동급 최강 18.5㎞/ℓ의 연비를 자랑하는 QM3는 국내외 SUV를 모두를 통틀어 가장 높은 효율성을 지녔다"며 "가격과 성능, 디자인 우수성을 고르게 갖춘 것이 인기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 네이버, 모바일 첫 페이지 개편 2달째
## 5명 중 1명 맞춤형 편집 이용

모바일 네이버 이용자 5명 중 1명은 메인 화면을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에 따르면 모바일 네이버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주제판을 선택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메인 편집 기능'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개편 2개월만에 전체 이용자의 23%를 넘어섰다. 또한 이 중 '뉴스'판이 아닌 '연예', '동영상', '쇼핑' 등 본인이 원하는 주제판을 모바일 메인 첫 페이지로 설정한 이용자도 약 22만명에 달한다.

작은 화면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바일 이용자들의 니즈를 위해, 개인화 설정 기능을 적용한 것이 모바일 네이버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네이버 측은 설명했다.

지난 3월 개편 때 처음 개설된 '패션·뷰티'판도 인기다. '패션·뷰티'판은 이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설 2개월만에 기본 설정 이용자 15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쇼핑'판을 시작으로 '20PICK' 판 등 특정 이용자들의 니즈가 높은 주제판에서는 이용자 로그인 정보에 기반해 맞춤화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무인 운전기술 유튜브서 대박

최근 선보인 현대자동차의 무인 자동차 운전 기술이 돋보이는 광고가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차가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제작한 제네시스의 놀라운 Intelligent Driving Test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시스템', 주행조향보조시스템(LKAS) '차선유지 지원시스템' 등의 최첨단 운행기술을 적용한 신형 제네시스의 자율주행에가 까운 동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 먼저 나갔던 이 광고는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6월 25일 유튜브에 게시된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의 '무인 차량 호송(Empty Car Convoy)' 동영상은 25일 현재 조회수가 1210만건을 돌파했다. 현대차 동영상 중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동영상은 제네시스 5대가 나란히 미국 모하비 주행시험장에서 자율 주행하는 영상을 담고 있다.

동영상에서는 5대의 차 맨 앞에서 달리는 트럭이 급정거를 하자 뒤따르던 차들이 모두 알아서 안전하게 멈추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에서 출시한 제네시스에는 자동으로 핸들을 조정하는 '차선유지 지원시스템',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첨단 신기술이 탑재돼 있어 이 같은 동영상 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운전자가 속도와 거리를 설정하면 자동차가 차량 전방 센서로 앞차를 인식해 간격과 속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 작동된다. 위험이 감지되면 시속 80km 속도에서도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다.

/이정필기자

# 이부진·정몽규 "세계 최대 도심형 면세점 만든다"

**HDC신라면세점 출범**
**400여 브랜드·공연장 등**
**6만5000㎡ 규모 활용**

**코레일과 철도관광 개발**
**용산 전자상가와 마케팅 등**
**지역 관광 활성화도 앞장**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을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형 면세점 'DF랜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는 25일 아이파크몰에서 정몽규 회장과 이부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점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HDC신라면세점은 현대산업개발과 계열사 현대아이파크몰이 각각 25%, 호텔신라가 50%의 지분을 출자한다. 200억원을 초기 자본금으로 시작해 1차연도에만 총 3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공동대표에는 양창훈 현대아이파크몰 사장과 한인규 호텔신라 운영총괄 부사장이 선임됐다.

HDC신라면세점은 세계 최대의 도심형 면세점인 'DF랜드' 콘셉트로 총 6만5000㎡의 면적을 면세점 사업에 활용한다. 한류·관광·문화·쇼핑이 한곳에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면세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북과 강남 등 서울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면세점을 표방, 인접한 면세점이 없는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관광 산업의 확장성에 무게 중심을 잡았다. 서울을 도쿄와 홍콩·하이난·타이페이 등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쇼핑도시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특히 HDC신라면세점은 민자역사에 들어선 철도 교통망을 활용, 서울에서 지방으로 뻗어 나가는 한국 관광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 여행사와 협조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코레일과는 철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방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남·충청·강원 지역 자치단체와도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경남지역의 종가음식·고택 체험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전국을 아우르는 지방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2만7400㎡ 넓이의 면세점에는 400여 개의 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공간(3만7600㎡)에는 한류 공연장, 한류 관광홍보관, 관광식당, 교통 인프라,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주차장은 대형버스 400여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아이파크몰 이벤트파크에 조성되는 한류 공연장은 2000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다. 200명의 관광객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대형 관광식당과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전시관 등도 문을 연다.

특히 'KTX호남선', 'ITX청춘'으로 연결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면세점 방문객들의 지방 관광을 유도하고 면세점 매장 안에 지역특산품 전용관도 설치한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사진 왼쪽)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25일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HDC신라면세점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 제공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를 모델로 용산 전자상가와 함께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홍보활동을 펼쳐 용산이 IT·전자 관광의 중심지로 부활하는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HDC신라면세점의 양창훈, 한인규 공동대표는 "서울이 세계적인 쇼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규모의 도심형 면세점인 DF랜드를 세울 것"이라며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해 전국 2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마트, '동대문표 SPA 편집샵' 오픈**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마트 잠실점 2층에 231㎡ 규모로 '엔플러스 라이프스타일 샵(N+ Lifestyle shop)'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 신동빈 회장, 호치민 당서기와 협력 논의

**롯데자산개발, 호치민시와 '투티엠 개발사업' MOU 체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5일 레 탄 하이(Le Thanh Hai) 베트남 호치민 당서기를 만나 현지 투자 및 개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자산개발 김창권 대표 등 계열사 사장단이 레 탄 하이 베트남 호치민 당서기장을 만나 롯데그룹이 호치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자산개발은 이날 호치민시와 '호치민시 투티엠 지구 에코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여전히 크다"며 "투티엠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발전하는데 롯데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롯데는 호치민 시 투티엠 지구 약 10만여㎡(3만여 평)규모 부지에 총 사업비 2조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에코스마트시티'를 개발할 예정이다. '에코스마트시티'는 백화점·쇼핑몰·시네마 등 복합쇼핑몰로 구성된 상업시설과 호텔·오피스 등 업무시설,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은미기자

## 국내 온라인몰에 부는 샤오미 광풍

**스마트폰 주변 기기서 생활가전으로 판매 제품 확대**

중국 IT기업 샤오미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보조 배터리·이어폰 등의 스마트폰 주변기기에서 시작된 샤오미 제품의 인기가 체중계·공기청정기·미밴드(Mi Band) 등 생활가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옥션이 지난 한 달간 샤오미 제품 판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어폰과 외장형 배터리의 판매가 전월대비 각각 113%,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번가에서 판매된 샤오미 이어폰 매출은 지난 1월 대비 22%, 보조배터리는 340% 급증했다.

이 같은 인기에 오픈마켓은 프로모션(판매촉진) 행사를 잇달아 열었다. 그 결과 옥션이 지난 11일 오픈마켓 단독으로 판매했던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에어(Mi.Air)'는 하루 만에 1250대가 완판됐다. G마켓이 지난 18일 오픈마켓 최초로 선보인 샤오미 체중계 '미스케일(Mi Scale)'도 하루 평균 1000개 꼴로 판매되고 있다.

11번가가 지난 20일 하루 동안 진행한 '샤오미 원데이 프로모션'에서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와 샤오미 체중계, 샤오미 스마트밴드 등은 준비된 한정수량 각 111대가 약 5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한정 수량이 매진된 후에도 샤오미 제품에 대한 구매가 종일 잇따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진 시계 방향으로 샤오미 보조배터리, 이어폰, 체중계, 미밴드. /G마켓 제공

G마켓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는 '샤오미 보조배터리'는 휴대폰배터리 부문 1위, '샤오미 체중계'는 건강측정계 부문에서 1위에 올라있다. '샤오미 이어폰'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 건도 각각 일 평균 2000건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소비자들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

샤오미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 품목도 다양화 되고 있다. G마켓에서 지난해 거래된 샤오미 제품 종류는 보조배터리 등 3~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취급 품목 수가 10개 정도로 늘었다.

샤오미의 인기는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이 SNS 등을 통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G마켓 디지털실 김석훈 상무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지난해에 비해 2~3배 이상 매출이 오를 정도로 대부분의 샤오미 제품들이 판매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다양한 상품으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힘내라! 대한민국
I Love KOREA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
기술의 희망 | IBK기술금융 |
취업의 희망 | IBK일자리창출 |
노후의 희망 | IBK평생설계 |
창조의 희망 | IBK문화콘텐츠금융 |
스마트 금융의 희망 | IBK ONE뱅킹, IBK ONE페이, IBK ONE금융센터 |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 제일모직 물류센터 화재… 의류공급 차질

### 갤럭시·빈폴 등 브랜드 산적
### A/S 제품도 포함 문제 심각
### 매장 직원 "물량확보 어쩌나"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대원 등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로 갤럭시·로가디스·빈폴아웃도어·에잇세컨즈 등 제일모직의 상품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제일모직 신사복 상설 할인매장 한 관계자는 "제일모직의 신사복의 경우 서울은 김포와 안양 물류센터를 통해 공급받아 왔다. 특히 김포 물류센터로 부터 오는 제품이 많다"며 "S/S(봄/여름) 상품은 재고가 있지만 가을·겨울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걱정이 많다. 김포 물류센터의 경우 갤럭시나 로가디스 등 신사복 말고도 브랜드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빈폴 아웃도어 직영점 한 직원도 "당장 S/S 상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다. A/S 제품도 김포 물류센터에 다 들어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일모직 브랜드가 약 30개쯤 되는데 지방마다 작은 물류센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김포물류센터를 거친다"며 한숨을 쉬었다.

제일모직 본사 관계자는 "출고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측은 소방 당국의 조사 후 실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면적 6만2518㎡에 총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규모의 철골구조로 된 김포물류센터에는 2~7층까지 의류 1600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에는 자재 구매원단이 집중된 반면 고층에는 완성품 중심으로 쌓여 있었다. 3층부터 제일모직에서 맡긴 의류를 층마다 약 300톤씩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모직은 2013년부터 가산동 물류센터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김포물류로 통합중이어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전 2시16분께 일어난 불로 건물과 의류 등이 불에 타고 경비원(34) 1명이 숨졌다. 소방차 170여 대와 소방관 등 모두 1000여 명이 동원됐지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제일모직 물류창고 폐쇄회로(CCTV)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포착돼 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플라스틱통을 옮긴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새콤달콤 '순하리 처음처럼' 한 잔 할까요"** 25일 롯데주류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순하리 처음처럼' 1000만 병 판매 돌파와 수도권 판매 확대를 알리는 사진행사를 진행했다. 순하리 처음처럼은 전남 고흥산 천연 유자 과즙과 유자향을 함유한 소주로 알코올 도수가 14도다. /롯데주류 제공

## 클라우드 돌풍… '오비 vs 하이트' 양강구도 균열

### 1분기 매출 196억 점유율 3%




롯데주류(대표 이재혁)의 클라우드(사진)가 시장점유율을 점차 높이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온 '오비맥주 대 하이트진로'의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44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클라우드는 올 1분기에만 19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3%를 차지했다. 맥주시장 점유율을 1%포인트 올리려면 2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이 들 정도로 어렵다는 업계의 정설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주류는 배우 전지현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과 대형마트에서 편의점까지 장악한 그룹 계열사의 방대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의 맥주시장 1위였던 오비맥주의 매출은 감소했다. 오비맥주의 모회사인 AB인베브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맥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4% 감소했다"며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점유율이 하락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 같은 매출 하락으로 올 1분기 오비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37~38%, 롯데주류가 3%를 차지하면서 오비맥주의 점유율은 60% 밑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 美 CNN "비비고, 차세대 한류 주역" 극찬

CJ그룹(회장 이재현)의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가 미국의 주요 뉴스 채널인 CNN 인터내셔널에서 '식문화로 한류 열풍을 이끌어 갈 다음 주자'로 소개됐다.

25일 CJ그룹에 따르면 CNN 인터내셔널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CNN Today'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한식 혁명(The K-Food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비비고'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은 비빔밥·불고기버거·고추장 닭강정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해 개발한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의 한식 브랜드들을 소개하며 한식을 'K팝, 드라마 등 문화 콘텐트 위주의 한류 열풍에서 K푸드로 확장이 가능한 한류의 주역'으로 꼽았다.

## 에스프레소클럽, 캡슐커피머신 무상 임대

에스프레소클럽(대표 정진혁)은 하루 5잔 만으로도 캡슐커피머신(사진)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스프레소클럽이 제공하는 캡슐은 북유럽1위 스웨덴왕실에서 공식 인증한 로베르츠와 이태리 정통 에스프레소 에카페로 총 16가지이다. 맛있는 커피 한잔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8g의 분쇄 커피가 캡슐 안에 담겨있다. 캡슐 안은 타사의 하나의 필터와 달리,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되어 있어 커피가 추출될 때까지 분쇄커피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다.



기업용 캡슐 커피머신 무상임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고객센터1588-4136 또는 에스프레소클럽 홈페이지(http://www.espressoclub.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예진기자

## 풀무원 "전통 김치 배우러 오세요"

### '뮤지엄김치간' 개관 한 달
### 무료 체험 '김치학교' 열어
### 내달 말까지 하루 1회 운영

풀무원의 새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間)'이 무료 김치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1일 서울의 문화명소 종로구 인사동에 문을 연 뮤지엄김치간(www.kimchikan.co.kr)은 개관 한 달을 기념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김치인 '배깍두기'를 만드는 '김치학교'를 연다.

'김치학교'는 학생들에게 김치를 직접 만들고 맛보게 한다. 김치에 대해 흥미를 갖고, 우리나라 김장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김치학교'는 이달 21일부터 6월30일(화)까지 하루 1회씩 운영된다. 회당 참여인원은 20~30명이며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실시된다. 별도의 입장료만 내면 1만5000원 상당의 무료 체험을 누구나 할 수 있다.



풀무원의 새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에서 김치만들기 시연을 하고 있다. /풀무원 제공

개인과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을 원하는 날로부터 2일 전까지 뮤지엄김치간 전화(02-6002-6456) 또는 이메일(museum@pulmuone.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뮤지엄김치간은 '김치학교'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통배추김치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배추돌나물겉절이를 직접 만들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오! 마이 김치'도 운영 중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종근당 '시미도나' 갱년기 치료제 인기

### 서양승마 추출 생약성분 홍조·수면장애 등 개선

종근당(대표 김정우)이 생약성분의 갱년기 증상 치료제 '시미도나'로 여성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미도나는 홍조, 발한, 수면장애, 신경과민, 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제품이다.

이 제품의 주성분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식물인 서양승마 추출물로, 서양승마의 뿌리제제는 유럽에서 50년 넘게 갱년기 증상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성분이다.

시미도나는 유럽 임상을 통해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정성을 유럽의약품허가당국(EMA)과 천연물의약품위원회(HMPC)로부터 인정받았다. 스위스에서는 갱년기와 폐경기 증상 치료제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생약성분의 갱년기 증상 치료제 '시미도나'

폐경은 노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여성들에게는 폐경 이행기와 폐경 후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폐경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 질환들은 중년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근당 관계자는 "갱년기에 수반되는 여러 증상들이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며, "하루 한알로 복용이 간편한 시미도나를 통해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 정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조치 강화

### 위기단계는 '주의' 유지 3~4주간 확산 추이 관찰

호흡곤란으로 위독한 상태를 보였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국내 첫 감염자 A(68)씨의 증상이 11일 발병이후 지금까지 완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4월18일부터 5월 3일까지 바레인에 체류하면서 농작물 재배관련 일에 종사 한 것으로 밝혔다. 그는 5월 4일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입국 시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1일(입국 7일후)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해 A병원 외래를 거쳐 12일부터 14일까지 B병원에 입원했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A씨의 병원체를 확진하고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서 치료중 23일 한 때 호흡곤란을 호소해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인체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며 "산소호흡기로 치료하던 것을 기도삽관 방식으로 바꾸고 기계호흡(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치료를 시행해 현재는 위험한 상태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입원 당시부터 앓던 폐렴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38도가 넘는 고열증상을 보이는 등 완전히 호전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A씨에 이어 부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C씨 등 메르스 감염 환자들은 호흡기 관련 증상 없이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명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메르스 증후군 환자가 추가 발생해 보건당국은 앞으로 3~4주간은 메르스 국내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후 위기 단계는 '주의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조치는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했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 최장 잠복기인 2주 뒤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지에 확산 여부가 달렸다고 보고, 중동 지역을 방문했거나 메르스 매개체로 알려진 낙타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최치선기자

# 강강술래 "가족 공연 나들이 쏩니다"

### '폴란드, 천년의 예술'展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 판매한다.

또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 술래양념(520g)으로 구성된 '캠핑세트'를 36%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도 반값인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명품 대상' 2관왕

### 암·건강증진센터 대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2015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지난 20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제1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수상기관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평가로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하게 된다.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및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암센터 부문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검진을 분리,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는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신속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시스템과 여성친화적인 편안한 진료 환경을 구축,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건강증진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여성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신속하고 편안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세심한 진료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여성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hmbok@

#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는?"

### 관광公 '베스트 그곳' 투표

대한민국 구석구석 베스트 여행지를 네티즌이 직접 선정하는 '베스트 그곳' 투표 이벤트가 시작됐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시, 군의 신청을 받아 총 44개 후보지를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체험 여행지'와,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낭만 여행지' 두 테마로 분류해 참여자들이 테마별로 3개의 지역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참여한 네티즌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되고, 투표지역에 대한 응원글을 올리면 당첨확률도 높아진다. 단 동일인의 다수 투표는 선정 집계결과에서 자동 제외된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2일까지다.

한편 네티즌들의 투표 점수(60%)는 여행전문 자문위원 점수(40%)와 합산, 최종 9개 지역이 선정되고, 공사는 선정된 지역에 대한 관광매력을 생생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제작, 오는 7월~12월 동안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 김태윤 팀장은 "네티즌 베스트 그곳 선정 이벤트는 단순히 각 지역 여행지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행지의 매력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는 기회이며,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혹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 정보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며 "국내여행에 대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 대림그룹 3세 이해욱 부회장 승계 마무리

## 대림코퍼·대림I&S 오늘 주총서 합병 결정 합병 땐 지분 52.3% '최대'

## 일감 몰아 계열사 키워 승계발판 이용 지적도



대림그룹이 자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이하 대림코퍼)과 대림I&S의 합병을 통해 이해욱(47·사진) 대림산업 부회장으로 3세 경영승계를 마무리하고 있다.

합병절차가 마무리되면 창사 77년 만에 고(故)이재준–이준용(장남)–이해욱(장손)으로의 경영승계 절차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지주사 최대 주주로 올라서**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코퍼와 대림I&S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의결한다. 양사는 이날 합병이 결정되면 오는 7월 1일까지 합병절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합병 방식은 대림코퍼 합병신주를 피합병법인인 대림I&S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이다. 합병 비율은 1대 4.19다.

합병이 완료되면 이 부회장의 대림코퍼 지분은 32.1%에서 52.3%로 높아진다. 반면 아버지인 이준용 명예회장의 지분은 60.9%에서 42.7%로 낮아진다.

대림코퍼는 주력 계열사인 대림산업 지분 21.7%를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 그룹전체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현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경영기획부에 입사한 지 21년 만에 그룹 총수에 오르게 됐다.

1966년 대림산업 계장으로 입사해 28년 만인 1993년 그룹회장이 된 아버지 이준용 회장보다 7년이 빠르다.

이에 대해 대림그룹 관계자는 "최근 해운업 등 종합무역업의 경기가 안 좋아 양사의 시너지효과와 안정적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면서 "아직 이준용 명예회장이 매일 출근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합병에 따른 지분변경이 있을 뿐 경영승계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편법 논란, 내부거래 피하기 의혹**

대림그룹은 이번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는 마무리됐으나 편법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비슷한 방법으로 대림코퍼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대림코퍼는 2008년 이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H&L과 흡수·합병했다. 그 전까지 대림코퍼 지분이 없던 이 부회장은 단숨에 2대 주주에 올랐다.

대림H&L는 지난 2001년 이 부회장이 110억원에 인수한 회사다. 그룹 유화부문의 해운중개와 해운 대리점업, 복합운송업을 맡아 급성장했다. 대림코퍼와 합병되기 바로 전 1700억원 매출 중 600억원 이상이 계열사거래 물량이었다.

이번에 피합병되는 대림I&S도 이와 유사하다. 지난 1995년 시스템통합·관리업체로 설립된 대림I&S의 매출은 2000년 1049억원에서 지난해 2667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확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인이다.

지난 2000년 이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350억원으로 전체 매출 중 33%에 불과했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90%까지 비중이 높을 정도로 매년 증가해왔다.

후계자가 보유한 회사에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줘 덩치를 키운 뒤 합병을 통해 승계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수법이 대림H&L과 대림I&S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딱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2008년 대림H&L 합병 당시 편법 승계 논란이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본격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합병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번 합병으로 대림I&S의 내부거래 비중이 11.89%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지분율 요건과 내부거래 비중 기준 자체가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며 "규제대상 회사들은 별다른 비용 없이 분할·합병과 영업양수도 등 사업재편만으로 규제부담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판교역 SK HUB 전경. /SK건설 제공

## SK건설 '판교역 SK허브' 대규모 오피스텔 분양

SK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대에 분양 중인 '판교역 SK허브(HUB)'를 분양 중이다.

판교역 SK허브는 지하 6층, 지상 8층 3개 동으로, 전용면적 22.68~84.79㎡, 총 1084실 규모다.

전용 84㎡ 타입(52실)은 기존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해 주거 편의를 높였다. 이 타입은 최근 아파트에서 인기있는 4베이(안방+침실+침실+거실) 구조가 적용돼 거실과 방 3개에 욕실 2개를 갖추고 있다.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비싼 관리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냉·난방시스템이다.

입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도 갖췄다. 공동현관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어 스마트카드나 비밀번호로 모든 출입자를 통제·관리할 수 있다. 방문자 녹화와조회, 에너지 사용량 확인, 조명·난방제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첨단 홈 네트워크시스템도 적용했다.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있다. 각종 판매시설과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회의실 외에도 지하 2층의 중정(中庭)과 지상 1층의 공개공지, 옥상정원 등도 들어선다.

교통도 우수하다. 단지와 신분당선 판교역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강남역까지 15분 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판교 IC도 인근에 있다.

한편 SK건설은 지하 2층, 지상 1층, 42개 점포로 구성된 단지 내 상가도 함께 분양 중이다. 현장에 마련된 분양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분양문의 : 031-707-6300 /김형석기자

##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6월 분양

포스코건설은 오는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2848가구 규모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7층, 18개 동, 전용면적 59~172㎡(펜트하우스 포함)다.

아파트는 ▲59㎡ 1331가구 ▲72㎡ 524가구 ▲84㎡663가 ▲101㎡ 88가구 ▲171㎡ 2가구 ▲172㎡ 2가구 로 총 2610가구다. 오피스텔은 ▲84㎡ 238실이다.

전 가구는 남향위주로 배치했고, 최고 47층의 초고층 단지로 우수한 개방감을 확보했다. 일부 가구에서는 인천대교, 잭니클라우스CC, 아트센터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안에는 다양한 테마의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7레인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탁구장, 사우나 등 스포츠시설과 키즈카페,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특화평면도 선보인다. 전용 59㎡ 타입은 4베이 설계와 안방 드레스룸이 마련됐다. 특히 전용 84㎡ 오피스텔 일부 타입에는 4베이-3룸, 전용 테라스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과 테크노파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송도1교와 제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과 안산, 안양, 수원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이미 개교한 송명초와 해송초로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옆으로 초, 중, 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인근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를 비롯한 글로벌 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인천카톨릭대, 한국외대, 인하대 등 국내 유수대학 캠퍼스도 개교를 준비 중이다.

인근으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홈플러스 등의 쇼핑시설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 인근 사이언스빌리지에 조성되는 스트리트몰 '페스티벌 워크'도 들어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6월 중 오픈 예정이다. 문의 : 1599-9508 /김형석기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metro entertainment E

# “40대도 기회 얻을 수 있는 시대죠”

## ‘착하지 않은 여자들’서 열연한 채시라



30년차 배우 채시라가 다작하지 않는 이유를 공개했다. 그는 “40대지만 젊은 배우 못지 않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대”라며 “작품을 자주 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저도 선배가 돼 가요. 장미희, 김혜자 선배는 한 획을 그어 놓고 그 길을 계속 걷고 계시죠. 저 역시 제가 잘 닦아 놓으면 후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어요? 후배들을 위해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다행히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출연했을 때 나오는 결과, 영향력을 고심해요. 많이 생각하고 선택하다 보니 다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14일 종영한 KBS2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채시라는 강순옥(김혜자)의 첫째 딸 김현숙 역을 맡았다. 작품은 두 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며 동시간대 1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채시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 당한 채 패배자로 살아 온 김현숙의 성장기를 몰입감 있게 표현해 호평 받았다. 극 초반 아줌마 파마 머리를 하며 연기 변신을 했다.



억척스런 연기 변신 ‘호평’
시청률 1위로 유종의 미 거둬

가정에 열정적인 모습 비슷해
연하남과 멜로? 작품 좋으면 콜

“요즘 아가씨들이 하는 파마인데 자꾸 아줌마 머리래요.(웃음) 김현숙은 무직이고 학력도 중학교 졸업이죠. 시놉시스에는 꾸미는 걸 좋아하는 김현숙으로 설정돼 있었어요. 실재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감독도 깨끗한 느낌을 원했어요. 극이 진행될수록 파마 굵기에 변화를 주면서 김현숙의 성장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을 본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네 필모그래피에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 역시 시청자에게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죠. 그동안 주로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했잖아요.”

채시라는 김현숙만큼 가정에 열정적이다. 슬하에 딸(15)과 아들(9)을 둔 그는 “집안 일이라면 온몸을 던진다”고 말했다.

“촬영을 하느라 손을 놨더니 둘째 아들 성적이 떨어졌어요. 원래 문제집을 같이 풀었었거든요. 또 집안 곳곳에 구멍 난 게 많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싶더라고요.(웃음) 평소에는 운동 삼아서 학교를 아침마다 데려다 주죠. 남편 김태욱은 식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간 나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죠.”

장르물, 청춘 로맨스가 대부분인 시간대에 가족 드라마로 승부수를 던졌다. 채시라는 주인공 한 명에게 치우치지 않는 내용 전개를 만족해했다.

“24부작으로 끝나니까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 아무리 짧아도 30부작이었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밤 새우는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미니시리즈 주인공들은 회가 진행될수록 말라 가는데 저는 잘 먹고 잘 잤죠. 우리 드라마는 모든 캐릭터가 시청자에게 인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차기작으로 다양한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분간 사극에는 출연하지 않을 거 같아요. 지방을 오고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수대비’(2011) 이후 현대물을 선택해온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극 영화는 고려해봤어요. 우리 것을 알리고 해외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이고 한국 배우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래도 김현숙을 연기하면서 현대물을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연하남과의 진한 멜로는 조금 닭살스럽지 않을까요? 괜찮은 게 있다면 ‘콜’입니다.(웃음)”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 star bag

### 지창욱과 한가족



배우 **현우**가 지창욱의 소속사 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소속사 측은 “현우는 순수한 면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양면을 연기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현우가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우는 내달 14일 방송되는 올리브TV·온스타일의 ‘유미의 방’을 촬영 중이다.

### 제주도 해남 변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MBC 수목극 ‘맨도롱 또똣’으로 지상파 정극에 도전한다. 오취리가 맡은 캐릭터는 극중 김해실(김희정)이 속해 있는 제주도 해녀 학교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남(海男)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인물이다. 27일 방송되는 5회부터 등장할 예정이다.

### 새 앨범으로 차트 1위



그룹 **샤이니**가 지난 18일 발표한 새 앨범 ‘오드(Odd)’로 한터차트·예스24·신나라레코드·알라딘 등 각종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에서 주간차트(5월 18~24일) 1위를 석권했다. 샤이니의 이번 앨범은 앞서 아시아 6개 지역 아이튠즈 종합 앨범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다. 현재는 타이틀곡 ‘뷰(View)’로 활동하고 있다.

### 여성영화제 개막식 사회



배우 **김아중**이 변영주 감독과 함께 27일 메가박스 신촌 M관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나선다. 김아중은 올해 영화제 첫 홍보대사인 ‘페미니스타’로 선정된 데 이어 개막식 사회까지 맡아 영화제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영화제는 27일 개막해 내달 8일까지 열린다.

# "앞으로의 30년 이겨내겠다는 다짐 담아"



## '데뷔 30주년' 이승철 12집 '시간 참 빠르다' 발표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가수 이승철(49)이 정규 12집 '시간 참 빠르다'를 26일 정오에 발표한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앨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타이틀곡 '시간 참 빠르다'를 비롯해 총 11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전곡의 타이틀화(化)를 목표로 스탠다드 팝부터 발라드·록·라틴·소울 등 여러 장르를 담았다. 세계적인 엔지니어 스티브 핫지, 댄 패리, 토니 마세라티와 손잡고 최상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30주년 앨범이니 개성있는 편곡을 해보고 싶었어요. '시련이 와도'는 원래 9번 트랙이었는데 2번으로 옮긴 이유는 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노래를 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30년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이 녹아든 곡이죠. 제게도, 듣는 이에게도 힘이 되는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앨범에서 그는 데뷔 후 처음으로 전곡을 직접 편곡했다. 30년 동안 가수로 생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번 앨범에 쏟아 부은 것. 특히 완벽한 소리를 완성하기 위해 무려 1억2000만원을 주고 1977년산 스타인웨인 피아노를 구입했다.

"피아노 매장에 갔더니 유독 눈에 띄는 피아노가 있었어요. 테스트를 위해 스튜디오로 가져와 소리를 들어보니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대로 놓고 가라고 했는데, 아내가 허락도 안 받고 샀냐고 뭐라고 하더군요(웃음). 그래서 악기 하나 사는데 너한테 물어봐야하냐고 우격다짐으로 샀어요."

30년 동안 정상을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는다. 싱글 앨범이 대세인 요즘 가요계에 정규 앨범을 발매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앨범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예전에 비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타이틀곡과 후속곡 정도만 알려지는 정도라서 나머지 곡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곡을 많은 분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승철인데 (정규)앨범 내야지'라고 한 마디씩 던지면 어깨가 무거워지죠. 그래도 앨범을 발표하고 같이 음악을 듣는 이런 시간 자체가 제게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올해 50세인데 이때까지 노래를 할 거라곤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찾아온 거죠."

그는 22일 방송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출연해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를 부르며 눈물을 보였다.

"녹화할 때 눈물이 엄청 나더군요. (신)해철이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났어요. 30년 후면 제가 80세인데 그때가 돼도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턱시도 입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승철은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쇼케이스를 연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 예술이란 무엇인가

theater review

/전효진기자 jeonhj89@

■ 레드



### 알찬 구성·조명 활용 재미
### 인문학 중심 대사 어려워

연극 '레드'는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레드'는 1958년 뉴욕 씨그램 빌딩에 있는 포시즌 레스토랑에 걸릴 벽화를 의뢰 받은 마크 로스코가 40여 점 연작을 완성했다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이자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마크 로스코(한명구·정보석)는 미국 팝아트 선구자 앤디 워홀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가 봤을 때 팝아트는 비즈니스일 뿐 예술이 아니다. 조수 켄(박은석·박정복)은 마크를 혼란스럽게 한다. "예술이 어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라고 묻는 켄은 추상표현주의가 피카소의 추상주의를 몰아냈듯 이번엔 선생님 마크의 차례라고 지적한다.

작품은 2009년 런던에서 초연됐다. 2010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돼 제64회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연출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다. 최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만큼 구성이 알차다. 주제 의식이 분명하다. 새로운 흐름이 기존의 것을 정복하는 현상을 통해 관객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마크와 켄의 대화는 단순한 예술 논쟁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무대는 마크 로스코의 작업실을 옮겨 뒀다. 작업 중인 캔버스는 마크와 켄의 고뇌를 담아낸다. 축음기를 통해선 마크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특히 두 사람은 빛에 따라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한다. 관객은 공연장 백열등이 전부 켜졌을 때, 무대 중앙에 있는 캔버스가 내뿜는 아우라가 예술을 예술답게 만드는 '인위적인 조명'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작업실의 초라한 민낯과 마주하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대사량이 엄청나다. 쏟아지는 대화는 철학·예술·종교 등 인문학이 중심이다. 낯선 미술사조와 니체·피카소·잭슨폴락 등 이름, 미학적 수사들로 인해 피로를 느낄 수 있다. 마크 로스코를 알고 본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럼에도 공연 시작 100분 후 당신은 마크·켄과 함께 예술을 논할 수 있다.

'레드'는 5월31일까지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된다.

# 칸 황금종려상은 '디판'

### 프랑스 영화 강세
### 한국영화 수상 불발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손꼽히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가 12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24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올해 제68회 칸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영화 '디판'에 돌아갔다. '예언자' '러스트 앤 본' 등을 연출한 프랑스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신작으로 스리랑카 출신 프랑스 이민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예언자'로 2009년 제62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6년 만에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이 됐다.

심사위원대상은 헝가리 라즐로 네메스 감독의 '사울의 아들'이 받았다. 감독상은 대만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섭은낭'이, 심사위원상은 그리스 출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바닷가재'가 받았다. 각본상은 멕시코 미첼 프랑코 감독의 '크로닉'이 차지했다.



제68회 칸영화제가 24일(현지시간) 폐막했다.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디판'의 자크 오디아르 감독(가운데)과 여우주연상인 '몽 로이'의 엠마누엘 베르코(왼쪽), '라 루아 뒤 마르셰'의 뱅상 랭동. /AP 연합뉴스

프랑스 영화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황금종려상에 이어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도 프랑스 배우인 엠마누엘 베르코('몽 로이')와 뱅상 랭동('라 루아 뒤 마르셰')에게 돌아갔다. 호평을 받았던 미국 토드 헤인즈 감독의 '캐롤'은 여우주연상(루니 마라)을 공동 수상했다.

공식 경쟁 부문 외 두 번째 주요 부문인 '주목할만한 시선'에서는 아이슬란드 그리무르 하코나르손 감독의 '램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비공식부문인 '비평가주간' 대상은 아르헨티나 출신 산티아고 미트레 감독의 영화 '폴리나'가 받았다.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된 한국영화 '무뢰한'과 '마돈나', '비평가주간'에 초청된 '차이나타운'은 수상에 실패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 연휴 극장가 승자는 '매드맥스4'

할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이하 '매드맥스4')가 석가탄신일 극장가 승자가 됐다.

'매드맥스4'는 개봉 2주차 개봉 2주차 주말인 지난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주말 3일 동안에도 67만2768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또한 25일 오후 1시55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200만511명을 기록해 개봉 11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매드맥스4'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독재자 임모탄에 맞서는 방랑자 맥스(톰 하디)와 사령관 퓨리오사(샤를리즈 테론)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장병호기자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세계를 하나로

#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Global Harmomy for Occupational Health – Bridge the world

##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전 세계 안전보건의 최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자 : 2015.5.31(일) – 6.5(금)
- 장소 : 코엑스(COEX)
- 주최 :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대한직업환경의학회(KSOEM)
- 후원 :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 www.icoh2015.org

주최 ICOH CIST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후원 고용노동부

▶ 지상파 한 주 몰아보기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JTBC '엄마가 보고 있다' 김부선 하차 논란



'엄마가 보고 있다' 제작진이 김부선이 언급한 프로그램 부당 하차에 대해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김부선의 하차는 프로그램 구성 변화가 있어서 행해진 하차다. 김부선 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하고 있는 원기준과 김강현도 다음 주 녹화분부터 참여하지 않는다. 출연진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작가진에도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녹화방송 두 시간이 넘어서 나타났지만 죄송하다는 사과 한 마디 없는 명문대 출신 여배우. 담당 피디나 제작진은 시청률에 미쳐서 습관처럼 늦는 여배우 빨아대고 난 그 꼬라지 절대 못보고. 난 감히 위대한 명문대 출신 나이 한참 어린 후배를 꾸짖었다가 졸지에 나만 '엄마가 보고있다'에서 하차한다"고 제작진의 일방적 하차 통보를 꼬집었다.







## KBS2 '프로듀사'·tvN '삼시세끼'·SBS '정글의 법칙' 金 시청률 대결

KBS의 첫 금토드라마 '프로듀사'와 원조 금요 예능 강자 SBS '정글의 법칙'이 접전하고 있다. '프로듀사' 3회는 시청률 10.2% (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차태현·공효진·김수현·아이유의 로맨스가 본격화 되면서 설렘 지수를 높였다. 특히 호떡을 둘러싼 김수현·공효진·아이유의 에피소드가 관전포인트였다. 경쟁작 SBS '정글의 법칙'(10.3%)을 0.1%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는 상황. '프로듀사'가 이번주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vN '삼시세끼'는 케이블·종편계의 최강자답다. 22일 '삼시세끼 정선편' 2회는 케이블·위성·IPTV 통합 가구 시청률 기준 평균 8%, 최고 11.3%(닐슨코리아·유료플랫폼·전국 기준)로 케이블과 종편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첫 번째 게스트 박신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고깃집 딸로 알려진 박신혜는 양대창을 굽고 볶음밥 요리, 스태프를 위한 20인분 재료를 직접 준비해 와 까다로운 남자 이서진에게 "앞으로 고깃집하는 게스트만 왔으면 좋겠다"는 칭찬을 들었다.

## TV 하이라이트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문학소녀의 눈물**

한민 고등학교의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원 기숙사 생활에 돌입한 늦깎이 학생들(?)은 각양각색 학교생활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모범생' 김범수는 "막 나갈거야"라며 뒤늦은 일탈을 꿈꾸지만 어설픈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홍진경은 극과 극의 반전 매력을 뽐낸다. 산이 앞에서는 막춤을 추면서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칭 문학소녀답게 시를 쓰는 수업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김수로, 강남, 성주는 교내 밴드와 함께 무대에 올라 남다른 춤 실력을 뽐낸다.

/정리=김지민기자 langkim@

### ◆ tvN '식샤를 합시다2'

오후 11시

이상우(권율)와 백수지(서현진)가 사귄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상우는 여자친구인 수지와 구대영(윤두준)이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연애 사실을 공개 선언, 삼각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또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미스터리남 이주승(이주승)의 정체가 밝혀질 예정이다.



###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 15분

서인영과 이수경이 강균성, 심형탁을 위해 '연애조작단'을 결성한다. 이날 방송에서 강균성과 심형탁은 '썸남 드링킹-꿈속의 그녀와 평소 원했던 드림데이트를 즐겨보세요'를 주제로 각각 최희, 보영과 데이트를 나선다. 서인영과 이수경은 이들의 데이트를 몰래 지켜보며 조력자로 나선다.



### ◆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오후 10시

경북 김천의 참외농장 이야기가 펼쳐진다. 5년 전 사법고시 1차를 통과했지만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 온 작은아들 이영대(35)씨. 겨우 작은아들이 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6개월 전 물리치료사 일을 하던 장남 김영완(39)씨까지 귀농을 했다. 남들이 볼 땐 부러울 만한 일이지만 정작 어머니인 이종순(56)씨의 속은 타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일 (화)**

| 지상파 | KBS1 | KBS2 | MBC | SBS | EBS1 | EBS2 |
|---|---|---|---|---|---|---|
| 18시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00 KBS 글로벌 24<br>30 2TV 저녁 생생정보 | 10 생방송 오늘 저녁 | 00 생방송 투데이 |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47회)<br>05 출동! 슈퍼윙스<br>25 내 친구 아서<br>45 신체가 튼튼! | 00 하늘 놀이터 (재)<br>25 Real Fun World (재)<br>30 헬로 코코몽 (재)<br>50 Real Fun World2 (재)<br>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
| 19시 | 00 KBS 뉴스 7<br>30 이웃집 찰스 | 50 오늘부터 사랑해 (37회) | 15 불굴의 차여사 (98회)<br>55 MBC 뉴스데스크 | 20 달려라 장미 (115회) | 00 지파이터스<br>30 EBS 뉴스<br>50 극한 직업 (재) |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br>35 Real Fun World3<br>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br>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
| 20시 | 25 가족을 지켜라 (12회) |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4회)<br>55 1 대 100 | 55 딱 너 같은 딸 (7회) | 00 SBS 8 뉴스<br>55 SBS 뉴스토리 | 40 다큐 오늘<br>50 세계 테마 기행 | 00 Real Fun World4 (재)<br>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br>20 스쿨랜드-인터뷰<br>30 공부의 왕도 (재) |
| 21시 | 00 KBS 뉴스 9 | | 30 리얼스토리 눈 | | 30 한국기행<br>50 EBS 다큐 프라임 | 00 다큐 오늘<br>10 EBS 스타 강사 특강 |
| 22시 | 00 시사기획 창<br>55 국민대합창 우리가 | 00 후아유 – 학교 2015 (10회) | 00 화정 (14회) | 00 풍문으로 들었소 (28회) |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오만과 편견> |
| 23시 | 00 KBS 뉴스라인<br>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 10 우리동네 예체능 | 15 PD수첩 | 15 썸남썸녀 |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 |
| 24시 | 35 독립영화관 <산타바바라> | 30 스포츠 하이라이트<br>55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 10 MBC 뉴스 24<br>20 MBC 100분 토론 | 35 나이트라인 | 05 지식채널e (재)<br>10 EBS 인문학 특강 |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

| 케이블 | JTBC | tvN | 올리브TV | 내셔널지오그래픽 | 채널CGV | 스포츠 |
|---|---|---|---|---|---|---|
| 18시 | 30 비정상회담 (47회) (재) | 50 삼시세끼 정선편 (2회) (재) | 10 겟잇뷰티 2015 (13회) | | | ◆ 프로야구<br>18:30<br>KT–LG (MBC SPORTS+)<br>롯데–SK (SKY SPORTS)<br>KIA–한화 (SPOTV+)<br>넥센–삼성 (KBS N SPORTS)<br>두산–NC (SBS SPORTS)<br> |
| 19시 | 55 JTBC 뉴스룸 | | 30 오늘 뭐 먹지? (50회) | 00 <극한직업>붕장어잡이 | 20 고지전 | |
| 20시 | 50 제 51회 백상예술대상 | 40 현장토크쇼 TAXI (381회) | 10 오늘 뭐 먹지? (52회) | 00 우주 속의 인류 | | |
| 21시 | | 40 집밥 백선생 (2회) | 00 올리브쇼 2015 (18회)<br>55 오늘 뭐 먹지? (65회) | | | |
| 22시 | 15 제 51회 백상예술대상 | | 30 오늘 뭐 먹지? (56회) |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3회) | 00 택시:더 맥시멈 | |
| 23시 | 4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28회) | 00 식샤를 합시다 2 (16회) | 05 올리브쇼 2015 (18회) |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2>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 | | |
| 24시 | | 20 현장토크쇼 TAXI (381회) (재) | 00 메이의 파티쿠킹 (1회) HD방송<br>10 2015 테이스티로드 (19회) | 00 <극한직업>붕장어잡이 | 00 굿모닝 맨하탄 | |

# 안병훈, PGA챔피언십 우승

## 21언더파… 프로 데뷔 후 정규투어 첫 승



안병훈(24·사진)이 유럽프로골프투어 메이저대회인 BMW PGA 챔피언십 정상에 등극했다.

안병훈은 2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서리주 버지니아 워터의 웬트워스 클럽 웨스트코스(파72·730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5개를 쓸어담아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안병훈은 2011년 프로 데뷔 후 정규투어 첫 우승을 유럽투어의 메이저대회에서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94만 달러(약 10억2000만원)다. 안병훈의 뒤를 이어 통차이 짜이디(태국)와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가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안재형-자오즈민의 아들인 안병훈은 2009년 US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 나이(17세)로 우승해 주목을 받았다. 2년 뒤 프로로 전향했고 유럽 2부 투어인 챌린지 투어에서 뛰며 실력을 키워왔다. 그리고 올 시즌 정규 투어에 진입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컷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난 이번 대회에서 안병훈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선 안병훈은 전반에만 버디 2개를 골라내 같은 조에서 우승을 경쟁하던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를 앞서기 시작했다. 몰리나리는 전반에 버디 2개와 보기 3개로 1타를 잃어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짜이디가 1타차로 따라오면서 안병훈을 압박했다. 정확한 아이언샷과 퍼트로 코스를 공략한 안병훈은 11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인데 이어 12번홀(파5)에서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

두 번째 샷이 홀 바로 앞에 멈춰서 앨버트로스를 놓쳤지만 탭인 이글로 연결해 한꺼번에 2타를 줄였다. 추격하던 짜이디와 히메네스는 순식간에 4타 차이가 났다.

15번홀(파4)과 17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6타차로 달아난 안병훈은 18번홀(파5)에서는 안전하게 파로 마무리했다.

한편 양용은(43)은 마지막 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22위(5언더파 283타)에 올랐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성남 FC와 광저우 헝다의 경기. /연합뉴스

# 성남, 또 한 번의 기적 일굴까?

## 광저우와 27일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K리그 클래식 구단 중 유일한 시민구단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른 성남FC가 아시아 최고 부자구단 중 하나인 광저우 헝다(중국)를 상대로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한다.

성남은 오는 27일 오후 9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광저우의 톈허 스타디움에서 광저우 헝다와 2015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펼친다.

성남은 지난 20일 열린 광저우 헝다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다.

한 해 운영비가 150억원 안팎에 불과한 성남이 한 해 1000억원 이상을 쓰는 광저우 헝다를 잡는 것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성남은 김학범 감독의 철저한 상대팀 분석을 통해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성남은 1차전에서 사용한 '선(先)수비, 후(後) 공격' 전술을 이번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광저우 헝다로서는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재빠른 역습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략법이다. 광저우 헝다의 수비수 리쉐펑이 1차전에서 퇴장당한 것도 성남으로선 호재다. 여기에 '중원의 조율사' 김두현의 경기 조율 능력과 치밀한 프리킥 세트플레이만 살려내면 8강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FC 서울은 27일 오후 7시 일본 오사카의 엑스포70 스타디움에서 감바 오사카(일본)와 16강 2차전을 치른다. 수원 삼성은 26일 오후 7시 일본 히타치 가시와 스타디움에서 가시와 레이솔(일본)과의 원정 2차전에 나선다. 전북 현대는 26일 오후 8시30분 베이징 노동자경기장에서 베이징 궈안(중국)과 16강 2차전 원정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 삼성·넥센, 순위 싸움 고비서 맞대결

## 삼성, 선두 재탈환 목표… 넥센, 공동 5위서 순위 상승 기대



넥센 히어로즈의 유한준.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가 올 시즌 초반 순위 싸움의 중요한 길목에서 맞붙는다.

삼성은 KIA 타이거즈와의 지난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넥센도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NC 다이노스와의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패배했기 때문이다.

삼성에게는 18이닝 연속 무득점으로 가라앉은 타선을 깨우는 것이 과제다. 반면 넥센은 마운드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두 팀의 대결은 순위 싸움의 중요한 길목에서 성사된 대결이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은 지난 주중 2경기에서 두산 베어스를 연이어 격파하고 1위 자리를 되찾았지만 KIA에 위닝시리즈를 내줬다. 승률 0.600(27승 18패)으로 1위 두산(승률 0.610·25승 16패)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이 넥센과의 3연전을 통해 선두 재탈환을 노린다면 공동 5위까지 추락한 넥센은 더는 밀려날 곳이 없다. 넥센과 8위 KIA의 승차는 단 1게임에 불과하다.

넥센은 최근 두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며 휴식을 취한 타율 1위 유한준(0.387)의 타격에 기대를 건다. 삼성과의 3연전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자신감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삼성은 이승엽이 대구구장에서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400홈런'을 쏘아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올 시즌 8호 홈런으로 자신의 개인통산 398호 홈런을 기록한 이승엽은 400홈런까지 2개의 홈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LG 트윈스와의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사흘 동안 무려 41점을 뽑아낸 롯데 자이언츠는 SK(26~28일), 한화 이글스(29~31일)를 상대로 기세를 이어간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 6패 1무에 그친 LG는 이번 주중 3연전에서 최하위 KT 위즈를 만난다. 급격한 하락세의 LG가 KT를 만나 반등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추락하게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장병호기자

# 훨훨 나는 강정호

## 7경기 연속 안타 행진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2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메츠의 경기에서 2루타를 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루타를 추가하며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강정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미국 프로야구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1개와 득점 1개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04(92타수 28안타)로 약간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앤드루 매커천의 2점포와 스탈링 마르테의 3점포 등 홈런 2개를 앞세워 9-1로 완승했다. 메츠와의 홈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21승 22패를 기록해 승률 5할에 다가섰다.

피츠버그 선발 프란시스코 릴리아노는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뽑아내며 1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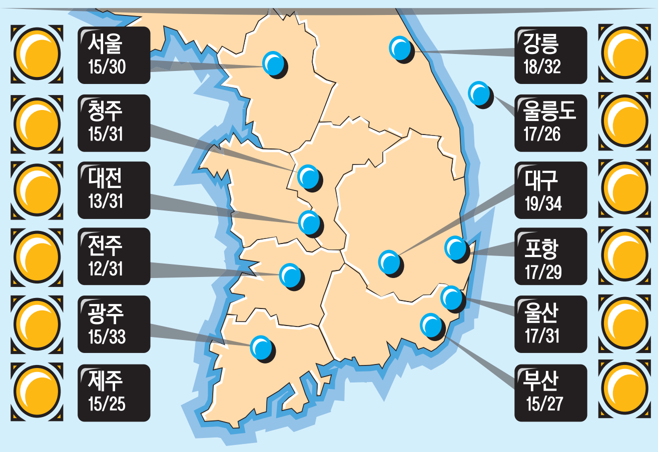
한편 강정호는 25일부터 사흘간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장병호기자

# 날씨

5/26 화 일출시각 05:16 일몰시각 19:4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7 | | 6 | | 3 | |
| | 3 | | 4 | 2 | | | | 1 |
| 2 | | 9 | 5 | | | | | |
| 4 | 9 | | | | | 6 | | |
| | | 6 | 2 | | 9 | 7 | | |
| | | 2 | | | | | 5 | 9 |
| | | | | | 2 | 5 | | 6 |
| 9 | | | | 6 | 5 | | 4 | |
| | 7 | | 8 | | 4 | | | |

| | | | | | | | | |
|---|---|---|---|---|---|---|---|---|
| | | | 5 | | | 9 | | |
| | | 9 | | | | | | 6 |
| | | 6 | 3 | | 9 | | 7 | 4 |
| | | 2 | | 4 | | 8 | | |
| 8 | | | | 1 | | | | 9 |
| | | 1 | | 5 | | 6 | | |
| 9 | 3 | | 8 | | 5 | 7 | | |
| 2 | | | | | | 5 | | |
| | | 7 | | | 1 | |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1 | 8 | 4 | 7 | 9 | 6 | 2 | 3 | 5 |
| 5 | 3 | 7 | 4 | 2 | 8 | 9 | 6 | 1 |
| 2 | 6 | 9 | 5 | 3 | 1 | 8 | 7 | 4 |
| 4 | 9 | 3 | 1 | 5 | 7 | 6 | 2 | 8 |
| 8 | 5 | 6 | 2 | 4 | 9 | 7 | 1 | 3 |
| 7 | 1 | 2 | 6 | 8 | 3 | 4 | 5 | 9 |
| 3 | 4 | 1 | 9 | 7 | 2 | 5 | 8 | 6 |
| 9 | 2 | 8 | 3 | 6 | 5 | 1 | 4 | 7 |
| 6 | 7 | 5 | 8 | 1 | 4 | 3 | 9 | 2 |

| | | | | | | | | |
|---|---|---|---|---|---|---|---|---|
| 1 | 7 | 3 | 5 | 6 | 4 | 9 | 8 | 2 |
| 4 | 8 | 9 | 1 | 7 | 2 | 3 | 5 | 6 |
| 5 | 2 | 6 | 3 | 8 | 9 | 1 | 7 | 4 |
| 7 | 9 | 2 | 6 | 4 | 3 | 8 | 1 | 5 |
| 8 | 6 | 5 | 2 | 1 | 7 | 4 | 3 | 9 |
| 3 | 4 | 1 | 9 | 5 | 8 | 6 | 2 | 7 |
| 9 | 3 | 4 | 8 | 2 | 5 | 7 | 6 | 1 |
| 2 | 1 | 8 | 7 | 9 | 6 | 5 | 4 | 3 |
| 6 | 5 | 7 | 4 | 3 | 1 | 2 | 9 | 8 |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룽고 지음)

#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

<불을 가지려는 사람은 연기를 참아야 한다>

## 시사 English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벌써 세번째 총리 지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와대의 결정이 국정운영에서 극심한 정치외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정 2인자로 불리지만 황 내정자가 내각에서 다소 난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직 서열관계로 짜여있는 내각 상황에서 황 내정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 부총리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부총리 모두 황 내정자가 아래 사람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는 연륜과 경륜의 소유자들인 만큼 삼두 체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안팎으로 황 내정자가 극복해야 할 역경이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예상되는 인사 청문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e that would have fire must bear with smoke'라는 페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불을 가지려는 사람은 연기를 참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bear with'은 '~을 참다' 혹은 '~가 말하는 것을 끈기있게 듣다'라는 의미의 숙어입니다.

황 내정자가 박 대통령을 도와 진정한 정치 개혁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역경과 여론의 의심, 비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인품을 겸비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하길 바랍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 제2 인생설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회계나 부동산 분야 공부해두시길

지지지 여자 80년 6월 13일 음력 11시 20분

**Q** 나이가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바로 결혼까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헤어졌네요.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시고 나름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하고 다른 계획들도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현재 사무직이여서 결혼 후에 미용쪽 기술이나 아님 아는 분이 동업으로 같이 가게를 하자고 하셔서 둘 중 하나로 바꿀 계획이었는데 너무 결혼이라는 선을 긋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나이도 있어 사무직은 한계가 있으니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위 생각했던 것 중 결정해도 좋을까요?? 언제쯤 결혼을 할지 내 맘처럼 되는 게 하나 없네요.

**A**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라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발전이 됩니다. 특히 미용을 배우는 것도 좋으며 동업으로 가게를 해도 돈은 벌수 있겠으나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즉 미용은 신장이 약해져 허리가 굽게 될 것이며 다른 쪽의 동업은 동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 영업을 한다고 나가게 되니 내가 꼼짝없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 현상이 되어 한숨만 쉬게 될 것입니다. 사무직이라면 다른 일보다도 오히려 한계는 적다고 봅니다. 나이 먹어서도 건강만 하다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회계분야에 실력을 쌓아두십시오. 사무직의 한계도 자기 할 탓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업이 불경기라 할지라도 4년 계획을 세워 부동산 자격증을 따도록 하시고 틈틈이 실력을 갖추어 놓도록 한다면 40세 지나서 반드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실행에 옮기기도 매우 난감합니다. 공통분모는 인생에서 답을 찾기란 일반적으로 누구나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매일 밤을 만리장성만 쌓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발전이 없이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작게 벌어 알차게 살 수 있으니 2015년 상반기 남자 잘못 만나다 낭패를 보지 않도록 마음에서 쫓기지 말고 인생설계를 차분히 하여 평화롭게 살도록 하십시오.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나의 감각 기관이 다소 혼돈되어 내 기(氣)를 빼기게 되니 취침 전에 tv를 보기보다는 서북쪽을 바라보며 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취침하는 것을 일상화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하는 일도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식사의 반찬가지수도 늘리지 말고 단조로운 밥상의 식단을 이어간다면 화색도 순수해져 음력 9월 이후 길 선한 인연이 이어질 것이니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신점[神占] 운세 5월 26일 (음 4월 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앞서가지 마세요. 60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입니다. 72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세요. 84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 49년생 지출이 늘겠습니다. 61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것도 없습니다. 73년생 잠시 쉬었다 가세요. 85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옵니다.

**호랑이** 50년생 길을 잃고 방황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됩니다. 62년생 시비하지 마세요. 74년생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86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세요.

**토끼** 51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입니다. 63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습니다. 75년생 억지로 하려말고 기다려 보세요. 87년생 한 발짝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입니다.

**용** **52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64년생** 대중교통 이용에 주의하세요. **76년생** 소신껏 행동하세요. **88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래는 연기하세요.

**뱀** **53년생** 꾀꼬리가 가지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입니다. **65년생** 재물과 영화가 찾아옵니다. **77년생** 구설을 조심하세요. **89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세요. 들어줄 것입니다.

**말**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거망동 하지마세요. **78년생** 북쪽방향이 길합니다. **90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합니다.

**양** **55년생**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67년생**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있습니다. **79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세요. **90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원숭이** **56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습니다. **68년생**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80년생** 모모든 것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92년생** 윗사람에게 큰 조언을 듣게 됩니다.

**닭** **57년생**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69년생** 이로움이 아주 많습니다. **81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93년생** 여행을 떠나면 해를 당하게 됩니다.

**개** **58년생**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70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8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94년생** 새로이 시작 하려는 일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돼지** **59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71년생** 뜻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83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95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 점점 무너져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최근 러시아에서 끝난 '2015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은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 중 금메달 3개는 여자에서 나왔다.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남자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4개를 노렸지만 고작 1개를 얻어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이란에 우승을 내줬다.

대한태권도협회 한 관계자는 "세대교체 과정이라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다. 16개의 금메달 중에 4개를 땄으면 잘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태권도 종사자들은 이번 결과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한국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등 4개의 태권도 단체가 있다. 한국 태권도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할 이들은 한국 태권도의 주체는 서로 자기들이라며 이권 다툼을 벌이기 일쑤다.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표팀 감독을 비전문적인 시도 전무이사와 협회 임원이 나눠 맡는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체육 훈·포장을 받기 때문이다.

과거에 출전하면 종합우승하던 시절이야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 인사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었다지만, 세계 각국의 전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 이 시점에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무임승차는 끝나야 한다.

특히 상대 국가 선수들의 전력을 점검할 정보자료가 부족하다. 경쟁국 선수들의 정보 수집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예산타령만 할 뿐이다.

하지만 한국과 경쟁하는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이란, 아제르바이잔, 대만, 일본, 중국 등은 정보분석팀에 꽤 많은 투자를 한다. 영국은 201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카메라 12대를 준비해 모든 경기를 촬영하고, 경기운영팀에 요청한 특정 선수의 주특기 발차기와 전수를 별도로 분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일본은 상대국 선수들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세워 대회에 출전했다.

주니어와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한국은 성인만 런던 올림픽 이후 상비군 체제로 전환했다.

리우 올림픽이 이제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에는 전북 무주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이 열린다. 종주국으로서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빚내서 주식투자'하다 낭패 보는 일 없어야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부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5개월여 만에 국내 투자자들의 '빚 투자'가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난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재연되는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21일 기준 7조6182억원으로 약 5조원대에 불과했던 연초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 잔액이 요즘처럼 많은 적은 없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황인 시점인 2006년부터 2007년 중순까지 신용거래융자는 1조원 미만에서 7조원까지 수직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1조원 대로 떨어졌던 신용거래융자는 2011년 6조9000억원대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이후 2014년까지 3조~5조원 사이를 오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신용거래융자'란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제는 증시 내외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일시적 유입이 장세를 이끄는 거품 상황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를 감안하면 시장 급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상황만 보고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다 '빚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다음달 15일부터 증시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는 시점에선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하루 60%에 이를 정도로 확대된다. 개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빚 투자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고 건전한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 면역력 높여주는 해독 식품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우리는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독소의 공격을 받으며 살고 있다.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해 독소가 체내에 쌓일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나 피로가 독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몸 속으로 유입되는 독소의 양이 많아지면 해독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유발한다.

이유 없는 두통이나 만성피로에서부터 알레르기, 암에 이르기까지 모두 독소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독 작용을 하는 식품의 섭취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마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는 신진대사를 돕고 체내 유해 물질의 배출을 활성화한다.

특히 알긴산 성분은 혈액을 탁하고 걸쭉하게 만드는 유해 물질 및 독소를 제거하며,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배변을 촉진한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 패스트푸드나 가공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 독소 생성을 촉진하며, 장 내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다시마에는 장 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해독과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매실 역시 훌륭한 해독 식품이다. 매실에는 간의 독성을 분해하는 피루빈산이 풍부해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

특히 음식, 혈액, 물에 있는 세 가지의 독을 해독하는 천연해독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매실을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하면 식중독이나 배탈, 설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매실에 풍부한 유기산은 지치기 쉬운 여름철 피로를 덜어주고 에너지를 더하는 데 좋다.

향신채인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중금속의 배출을 돕는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각종 노폐물들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항균, 항염, 항산화, 항암 효과를 두루 지니고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 다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열성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 Justice Chief Whang Kyo-Ahn, Nominated New Prime Minister

President Park Geun-hye on Thursday nominated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as the new prime minister, calling hi m "the right man" to achieve political ref orms proposed in the wake of a high-pro file graft scandal involving her close con fidants. Park's decision to tap Hwang, a former veteran prosecutor, for the natio n's No. 2 post appeared to reflect her de sire to end the political vacuum caused b y the escalating scandal and to seek fres h momentum for her reform drive. "Hwa ng ha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presi dent's philosophy on state management, and is the right man to build a new Repu blic of Korea by eradicating corruptive p ractices and achieving political reform," said Senior Press Secretary Kim Sung-w oo. "I will do my best to uphold the peop le's wishes, with an understanding that t aking care of the socially weak is also a crucial national task while achieving peo ple's harmony and social integra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 새 총리 후보에 황교안 전 법무장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을 지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어 국정 공백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황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회 인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후임 법무장관 인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황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발표 직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순하디 순하다
우리들의 가벼운 I 순하리 처음처럼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순하리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유자처럼 상큼하게
유자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